

‘와이파이 불통’ 낯뜨거운 스마트 캠퍼스

구축사업 마무리되면 원활해질 듯

지난 3월 제주대는 KT와의 협약을 통해 스마트 캠퍼스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학 구성원들은 학내에서 여전히 스마트폰의 와이파이 연결 상태가 불량하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와이파이는 무선접속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일정 거리 안에 있으면 휴대폰 등의 다양한 전자제품으로 무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근거리통신망이다. 제주대는 전략적인 스마트 캠퍼스 환경을 구축한다는 명목하에 지난 3월에 KT와 협약해 학교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보급한 적이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 사용에 필요한 무선 인프라 구축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대학 구성원들은 학교 측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도록 해놓고 그에 걸맞은 사용 환경 만들기에 뒷전이라고 불만이 많다.

와이파이가 잘 잡히지 않는 원인은 현재 학내에 설치된 무선접속장치가 너무 오래돼 연결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학교 구성원들은 와이파이 대신 유료인 3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게다가 3G는 와이

파이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속도 정도밖에 되지 않아 대학 구성원들의 불만이 많다.

또한 3G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을 준다. 무선접속장치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무료인 와이파이와 달리 3G는 인터넷 연결시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한영숙(외국어교육원)강사는 “최근 스마트폰을 장만했는데 학교에서 와이파이 연결이 잘 되지 않아 인터넷속도가 느린 3G를 사용해서 불편하다”며 “하루 빨리 학내 전 지역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희(독일학과 4)씨는 “수업 중에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정보 검색할 때가 많은데 와이파이 연결이 안돼서 3G를 사용한다”며 “3G는 통화료가 들어 계속 사용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인터넷 네트워크망을 관리하는 정보통신원은 새로운 무선 접속장치를 만들어서 와이파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신경철(정보통신원)씨는 “방학 중에 학교 전 지역에 걸쳐 무선랜 구축공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다음 학기부터는 스마트폰의 와이파이가 제대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모리 기자

스승과 교류 위한 책임지도제 유명무실

진로 및 개인고민 등 실질적 상담 이뤄져야

학생과 교수간 징검다리가 돼야 할 ‘책임지도교수제’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책임지도교수제는 교수가 일정수의 학생들을 맡아 학업과 진로 등 대학생들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2학기부터 전체 학과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 제도는 올해 신입생부터 매학기 필수로 지도교수와 상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취지가 무색하게도 상담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학생들이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오랫동안 학생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교수가 있는가 하면 일부 교수들은 형식적인 질문만 하다가 상담을 끝내기도 한다.

사범대학의 한 학생은 “교수님이 신상정보만 간단히 묻고 5~10분만에 상담이 끝났다”며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니 교수님들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문대학의 한 학생도 “상담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진로고민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교수와 학생이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학생들이 너무 상담을 받

으려 오지 않아 교수들이 직접 수차례 전화하는 상황도 벌어진다.

김희철(무역학) 교수는 “1학년은 상담이 의무이지만 이반학기에 단 3명만 상담을 받으려 왔다”며 “학생들에게 진로 등을 조언해주고 싶었지만 참여가 너무 부족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책임지도 담당 학생이 너무 많아 상담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담당부서인 취업전략본부에 따르면 지난학기에 한 교수가 최대 53명까지 학생을 맡았다고 한다. 담당 학생이 너무 많은 교수들은 시간이 부족해 모든 학생들을 상담하지 못하거나 짧게 상담할 수밖에 없다.

김정숙(생활환경복지학부) 교수는 “많은 담당학생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다보니 연구·수업과 병행하기도 어려웠다”며 “학생들을 위한 좋은 제도인 만큼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 제도는 상담을 통해 교수가 학생의 인생의 멘토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상담이 형식적으로 흐르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한편 강원대에서는 ‘꿈실계상담’이라는 제도로 학생이 사이트

를 통해 교수에게 상담내용을 미리 전하도록 하고 있다. 강원대 김진환(학생취업장학과)씨는 “학생들이 상담내용을 교수에게 미리 전달해 교수가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학생들 스스로가 원하는 상담내용을 준비하도록 해 상담이 형식적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북대에서는 단순한 상담뿐만 아니라 지도교수와 담당 학생이 함께 MT를 가거나 현장견학을 가기도 한다. 전북대 박경훈(종합인력개발원)씨는 “매학기 상담률이 95~96%에 이를 정도로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다”며 “상담을 비롯해 MT, 현장견학 등으로 학생과 교수가 진실된 소통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주대 취업전략본부에서는 상담이 미진한 학과에 요청을 할 뿐, 학과별 상담률도 파악하지 않고 교수와 학생의 상담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정익권(취업전략본부)씨는 “상담이 미진한 학과에 상담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요청하고 있다”며 “아직은 제도가 첫 시행단계인 만큼 앞으로 상담률을 파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희희 기자

MICE 취업률 프로그램 평가 ‘우수’

3차 사업비 국고만 27억여원 확보

관광·레저선도산업 인재양성센터(센터장 장성수 관광개발학과 교수)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차지해 3억4900만원을 받는다. 이로써 3차년도 사업의 경우 국고만으로도 모두 27억2500만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의 쾌거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전국 21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센터를 대상으로 권역별 취업률 제고 프로그램들을 평가한 결과다.

관광·레저선도산업 인재양성센터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제주의 MICE산업에 필요한 현장맞춤형 인재양성사업을 추진해 국제 MICE 유치컨테스트 우수, 국내 최초 ‘융복합 MICE 학사’ 학위과정을 개설했다. 이를 통해 2차년도 조직운영 및 홍보 부문 최우수 평가에 이어 취업률 향상 프로그램에서도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3차년도 취업률 향상 프로그램은 총 4개 단계로 이뤄진다. 산업체와 학생간의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취업

인식 개선 단계 △취업과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현장적응력 강화 단계 △창업기회 제공단계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광역경제권 취업률 달성단계로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특히 도내에서 계획된 대규모 개발사업인 한화호텔&리조트의 제주 해양과학관 및 앵커호텔 건립, 제주 그랜드호텔 부대시설 확장계획과 연계함으로써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을 높였다.

장성수 인재양성센터장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이 종료될 내년 2월까지 우리대학 학생들이 제주권 취업률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적인 취업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학생들의 실질적 취업으로 연결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3차년도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광·레저선도산업 인재양성센터는 지난 4월 기준 전체 취업률 71.8%(권역내 취업률 57.3%)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3차 년도에는 62% 취업률(권역내 취업률 53%) 이상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15일 교양동 부근에 춘자국이 따사로운 햇빛을 받으며 활짝 폈다. 학생들도 꽃길을 거닐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다. 고희희 기자

제주대생 10명 “미국 디즈니월드로”

8월부터 인턴십 참가 16일 출국

제주대 학생들이 미국 디즈니월드로에서 글로벌 경쟁력 배양에 나선다. 제주대는 지난 15일 본관 2층 회의실에서 ‘2011년 델라웨어주립대학-디즈니월드 해외인턴십’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해외인턴십 참가자는 지난 3

월 델라웨어주립대와 디즈니월드 프로그램 담당자가 제주를 찾아 직접 인터뷰를 통해 선발한 이용혁 학생(법학과 3) 등 10명이다.

이들은 16일 미국으로 출국해 학술교류 협정대학인 델라웨어주립대에서 7월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3

과목을 수강하게 된다.

이여 8월 8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디즈니월드에서 유급 인턴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대학생들과 함께 일하며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 경쟁력을 쌓아가게 된다.

특히 이들은 제주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미국 현지에서 홍보대사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현해탄 건너온 고향에의 사랑
끝없는

그대들은
우리가 끝끝내 뒤돌아보아야 할

제주인의 초상
입니다.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濟州大學校 在日濟州人センター
Tel. +82-64-754-3976, 2846

사설

방학 중에 생각하는 대학의 의미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캠퍼스는 더할 나위 없이 한적해 보인다. 시간의 흐름이 갑자기 느려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사람들도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이것이 다인가? 대학의 방학은 이런 것인가? 대학은 지금 휴가 중인가?

겉모습은 사람을 현혹시킨다.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다. 지금도 도서관에서, 작업실에서, 실험실, 연구실에서, 모처럼 주어진 자기 시간을 관리하며 발전을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다. 행정업무도 계속되고 있고, 삶의 현장에서 경험을 늘여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제주대 신문 편집실에서도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또 헛수고도 없다. 자신이 바라는 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땀방울은 참으로 정직한 것이다. 노력과 경험은 최소한, 그걸 해낸 사람들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렇게 향상된 능력이 결국은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이 무더위 속에서, 시간 낭비의 자유까지 부여된 방학 중임에도 자기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와 찬사를 아끼지 않고 싶다. 이런 노력들이 우리 사회를 지금 이만한 수준까지 올려놓았고, 또 앞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견인해 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대학은 이런 곳이다. 방학 중에도 잠들지 않는 곳.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곳. 세상이 그런 것을 대학에 기대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대학은 사회적 기대와 존경이라는 기반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요즘도 대학에 대한 존경이 남아 있는지, 대학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는지 자조하는 대학인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그런 기대와 존경이 남아 있어 여기가 학원이 아니라 대학인 것이다.

자조로 자신의 안일을 변명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대와 존경에 부응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이 대학인의 자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겉으로는 한 없이 여유로워 보이는 이 방학에 대학의 위상과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때문이다.

대학이 지녔던 지적 권위의 독점이 무너지는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대학 밖의 연구소들, 기업 연구소나 공공 연구소들의 지적 생산이 대학을 앞지르는

현상도 오래 전부터 지적되던 것이다. 대학 강의보다 수준 높은 기획 기사나 영상 프로그램도 적지 않다. 인터넷에서도 대학 강의를 뛰어 넘는, 수준 높은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대학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가. 어떻게 학생들을 유치하고, 사회적 기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대답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시 대학이 지니는 근본적 의미는 사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적 권위의 독점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대학에는 여전히 학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 기대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진정으로 학문을 사랑하고, 그것을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른바 애지자(愛知者), philosopher들,

philosophy가 좁은 의미의 철학이라고 고집하지는 말자. philos(愛), sophia(知)의 원래 뜻 그대로 “지식, 지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대학의 의미인 것이다. 권력을 쫓는 사람, 금전을 쫓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들의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을 존경하기는 힘들다. 그들은 자신의 현실적 이익을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이다. ‘애지자’에게 자신의 현실적 이익은 2차적인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존경이 따르는 것이다.

사회적 존경의 의미가 달라졌다고, 대학에 ‘애지’의 정신은 이미 없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겠지만, 근본은 결코 변하는 것이 아니다. 한 때 그래 보여도, 세상은 다시 돌아 근본으로 돌아오는 법이다. 그래서 근본이 이야기되는 것이다. 근본에 대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적어도 대학에서는 그런 신념을 지켜 주어야, 세상을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사람에게 휴가는 어떤 의미인가. ‘애지자’에게는 방학이 있을 수 없다. 가끔은 ‘애지자’의 겉모습을 이용하여 엉뚱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추구가 성공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 사람들이 모두 어리석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없이 느슨해 보이는 이 방학에도, 대학의 정신이 잠들지 않았다 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또 세파에 한 없이 나약해지는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기 위하여, 기본 중의 기본, 근본 중의 근본인 ‘애지’의 정신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현장 뛰며 학교발전 동참”... 수익금은 발전기금으로

학생들 미로공원 야간개장 등 기획

어둠이 짙게 깔린 미로, 은은하게 들려오는 음악소리. 몽환적 분위기가 미로공원을 덮고 있다. 각양각색 가면을 쓴 사람들은 작은 랜턴과 줄에 의존해 미로를 헤맨다.

강유나(국어국문 1)씨는 “김녕미로공원에 자주 오지만 낮에 올 때에는 사뭇 기분이 다르다”며 “잔잔한 음악과 조명이 잘 조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렇듯 김녕미로공원에 멋진 분위기를 자아낸 것은 바로 제주대 학생들이다. 그 주인공은 관광경영학과 내에 있는 독서 토론 동아리 PINETREE와 취업전 기업의 실무를 배우고 경험하는 동아리 HRA 학생들이다. 이들은 이번 야간 개장에 기획부터 마케팅, 홍보, 설치, 운영 등 전반에 참여해 이 같은 풍경을 만들어 냈다.

대다수 학생들이 방학 동안 토의, 자격증과 같은 스펙에 열중하는 동안 그들은 실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경험을 쌓고 있는 것이다.

이번 야간 개장에 마케팅에 참여하고 있는 김용현(관광경영 3)씨는 “관광경영을 전공해 이론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실무를 직접 해보니 기분이 남달랐다”며 “처음에는 기업체 계가 적응이 안돼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사를 비롯한 직원 분들의 도움으로 잘 적응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또 그는 “이번 경험을 통해 실무에 대한 자신감과 서로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동료들과의 팀워크, 책임감 등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기획에 참여한 차상엽(사회 3)씨는 “실무경험이 없었으니 초반에는 어떻게 기획을 해야되고 무엇을 짜야 될지 고민이 많았다. 그렇지만 무언가 뛰어넘기 보다는 배운다는 마음으로 기존 프로그램과 내용을 참고해 기획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할로인데이 등 특정 날짜마다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며 “색다른 미로공원을 즐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야간 개장을 대학생들에게 말한 제주 김녕미로공원의 김영남(관



김녕미로공원 야간 개장을 기획·운영하고 있는 PINETREE와 HRA 학생들.

광경영학과 박사과정) 이사는 “제주 지역 학생들이 관광 사업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심지어는 관광쪽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관광 쪽에 대해 꿈을 가지거나 도전하려 하지 않는 것 같았다”며 “이러한 실무 기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관광 사업에 대한 관심과 실무 경험을 쌓아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기회가 단순히 기부방식에 사회 환원을

떠나 학생들에게 많은 경험을 쌓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야간 개장은 지난 15일부터 8월 27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참가하기 위해서는 7시 30분부터 9시 30분 사이에 미로공원에 입장해야 한다. 한편 이번 야간개장으로 얻은 모든 수익은 제주대에 기부될 예정이다.

강보배 기자

세계환경과 섬연구소 연수교육 진행

‘세계환경지킴이’ 연수기관 선정

세계환경과 섬연구소(소장 고창훈)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세계환경지킴이 및 세계평화유산지킴이’ 연수 기관으로 선정돼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제5차 세계환경과 섬 하계대학’과 연계해 열리는 이번 연수는 2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제주대학교, 세계지질공원, 우도 등지에서 이뤄진다.

참가대상은 국내교사 50명, 제주 지역 교사 15명, 일본 교사 5명 등 70명으로, 이달 22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영어로 이뤄지는 연수는 교양당에

서 진행되는 이론교육을 비롯해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우도, 만장굴, 산방산 하는 이충분화구 등의 세계지질공원 투어와 현장교육, 그리고 8월 6일 개최되는 제11차 평화섬포럼의 현장교육으로 나뉘 진행된다.

연수과정을 수료한 교사들에게는 34시간 3학점의 연수교육 수료증이 수여된다. 또 해당 컨퍼런스 등의 참여를 거쳐 출석을 완료할 경우 UN 세계관광기구의 ‘녹색성장과 트레블 리즘연구소’, 세계섬학회가 수여하는 국제수료증이 별도로 수여된다.

문의=세계환경과 섬연구소(전화 010-5335-4125, 010-6777-7676)

해군 ROTC 내년 1월 재창단... 25명 모집

해군 ROTC가 내년 1월 제주대에 재창단된다.

현재 제주대는 해양실습학과와 실습선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해군장교 양성을 위한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8일 정월 25명으로 제주대 해군 ROTC 재창단을 승인했다. 따라서 2011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해군 ROTC 후보생 25명

을 선발한다. 이번 달에 모집공고를 내고 다음달 1일부터 9월 29일까지 지원서 접수를 받는다. 이후 선발시험을 거쳐 11월 11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제주대는 학생군사교육단 건물 신축을 준비하고 있으며 9월에는 해군 본부와 학·군 교류 협정체계를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대는 해군 ROTC 재창단을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하는 등 해군 ROTC 재창단을 준비하고 있다.

1968년 40명 정원으로 해군 ROTC가 처음 창단됐으며 1992년 모집을 중단할 때까지 482명이 입관했다. 이 외에도 제주대 ROTC는 현재 해병대 ROTC 30명을 정원으로 56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제주대에서 육군 276명, 해병 1498명 등 총 2256명을 장교로 배출했다.

전국 교원양성대학과 양해각서 체결

제주대는 입학사정관제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해 전국 교원양성대학들과 손을 잡았다.

제주대는 지난 14일 변산 대명리조트 세미나실에서 입학사정관제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해 전국 교원양성대학들과 ‘입학사정관제 양해각서 체결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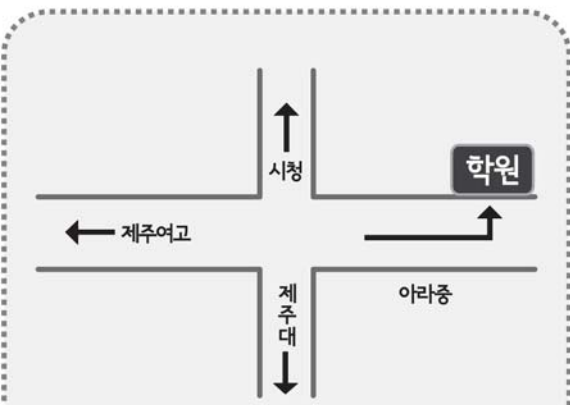
이날 제주대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대학교는 광주교대(총장 박남기), 대구교대(총장 손석락), 부산교대

(총장 김상용), 진주교대(총장 정보주), 청주교대(총장 김수환), 춘천교대(총장 김선배) 등 6곳이다.

이들은 △2012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공통 추천서 활용 및 향후 공동 입학전형 운영 △입학사정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워크숍 개최 △입학사정관제 관련 권역별 임시심의회 개최 △학술활동 추진 및 정보교류 △교원양성대학 입학사정관협의회 구성 등에 협력키로 했다.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주 운전면허 기능시험 자체 실시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주말교육가능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 ↔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제31회 백록학술상 현상 공모 실시 안내

언론미디어센터에서 제주대신문 창간 57주년을 맞이하여 제31회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 공모하고자 합니다.

- 1. 행 사 명 :**
제31회 백록학술상
- 2. 응 모 자 격 :**
제주대학교 재학생(대학원 박사과정은 제외)
- 3. 응 모 분 야 :**
일반논문 A4용지 10매-30매 내외(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이미 발표된 논문이나 학위논문 제외)로 작성하고, 논문 출력물과 논문 파일은 CD로 동시 제출, 제출된 원고는 반환되지 않음.
- 4. 시 상 :**
학부생/대학원생 (당선: 총장상 및 상금 50만원, 가작: 총장상 및 상금 30만원)
※ 수상인원은 논문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
- 5. 접 수 마 감 :**
2011년 12월 12일(월) 18:00까지
- 6. 접 수 장 소 :**
언론미디어센터 행정실(취업전략본부 3층)
- 7. 당선작발표 :**
2012년 신년특집호(1월 4일자)
- 8. 심사및시상 :**
심사위원회에서 추후 결정

제주대병원 소식



강성하 병원장은 “제주대병원이 방송을 통해 보여지면서 제주에도 서울의 대형병원 못지 않은 쾌적하고 멋진 시설을 보유한 의료시설이 있음을 홍보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방송 및 영화 관계자들이 제주지역에서 병원 장면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활발

제주대병원(병원장 강성하)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시행 의료기관’으로 인증 받아 도내 소외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외국인근로자나 국적 취득 전 여성결혼 이민자, 난민 중 건강보험 및 의료보험 혜택 제외자 등을 대상으로 입원과 수술비용 등을 제공한다. 연간 진료비 지원의 회수 제한은 없다.

제주대병원은 이밖에도 차상위계층과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재건 성형과 백내장 수술 지원 사업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내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시행 의료기관’은 제주대병원과 서귀포의료원 등 2곳이다. 소외계층 의료서비스의 수술 지원 신청 접수는 오는 29일까지 이뤄지고 있다.

문의 제주대병원 사회사업실 717-1134.

드라마·영화 촬영장소로 각광

제주대병원(병원장 강성하)에서 최근 KBS드라마 ‘올레길 그 여자’ 촬영이 이뤄지는 등 제주대병원이 드라마 및 영화 촬영 장소로 인기를 얻고 있다. 제주대병원에 따르면 박정아와 독고영재가 출연하고 있는 KBS 드라마 ‘올레길 그 여자’는 제주대병원 응급실을 비롯해 병원 곳곳에서 촬영이 이뤄졌다. KBS 드라마 촬영팀은 “컨벤션 느낌이 나는 제주대병원에서 촬영을 하게 돼 촬영 모습이 더욱 예쁘게 나올 것 같아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주대병원은 제주시 아라동으로 신축 이전한 뒤, SBS ‘태양을 삼켜라’를 시작으로 SBS ‘인생은 아름다워’, ‘파라다이스 목장’, ‘커피 하우스’ 등의 촬영 장소로 사용됐다.

여름을 열심히 보낸 당신 미래는 ‘활짝’

방학은 공부를 할 기간

이열치열(以熱治熱). 열은 열로 다스린다는 뜻이다. 요즘 대학생들은 폭염이 계속되는 여름을 미래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보낸다. 꿈이 가득한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공부에 매진한다. 개성과 효율을 중시하는 세대인 만큼 공부하는 방식도 각양각색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공부 열의를 불태우는 그들을 만나봤다.

나홀로 공부족
‘사각사각’, ‘사삭’ 도서관에선 연필소리와 책장 넘기는 소리만이 정적을 갠다. 여름방학을 맞아 산과 들로 떠날 법도 한데 교내 도서관은 공부하는 학생들로 늘 북적인다. 자신의 얇은키보다 더 높은 책들을 쌓아놓고 공부에 집중하고 있던 조승훈(행정 2)씨는 군대에서 전역해 처음 방학을 맞고 있는 중이다. 아직도 군인같은 짧은머리가 잘 어울리는 20대 초반의 그는 도서관에 매일 와서 공부한다. 방학 때도 도서관에 와 매일 공부하는 이유를 묻자 조씨는 “이번 9월에 학교프로그램 연수로 필리핀에 가게 됐다”며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은데 갈 때 효과를 극대화 하려면 지금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때로는 놀러가는 몇몇 친구들이 부럽기도 하지만 내가

목표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고 말했다. 도서관에는 귀에 이어폰을 끼고 동영상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도 꽤 있었다. 황태식(관광경영 4)씨는 노트북 모니터에 나오는 강사의 설명을 열심히 받아 적고 있었다. 경찰이 되기 위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는 “도서관이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문을 여는데 개관시간에 도착해서 하루종일 공부하다가 폐관시간에 집에 간다”고 말했다. 하루 4~5시간 잔다는 그의 총출력 된에는 피곤함이 묻어났다. 매일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지치지 않냐고 묻자 그는 “하루종일 혼자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 자신과의 싸움이다.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다”며 “그러나 이제 졸업을 앞두고 취업할 시기인데 지금 집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희생하지 않고 얻는 것은 없다”며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다함께 스터디족
방학 중에는 같은 분야를 함께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끼리 만든 ‘스터디모임’도 인기다. 정치외교학과 4명의 학생과 교수 1명으로 구성된 ‘뜨거운 형제들’은 사회과학 책을 읽고 일주일에 한번 만나 토론하는 모임이다. 이 모임의 리더인 고명수(정치외교 2)씨는 “지난 학기부터 전반적인 교양을 쌓기 위해 심도 있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사회과학 서적을 읽고 토론하고 있다.

게 토론하며 공부하고 싶었다”며 “그러나 학기 중에는 다들 바쁘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해 하면 집중적으로 공부모임을 진행할 수 있을거라 생각해 방학 중에 스터디모임을 결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더운 여름에 학교에 올라와서 공부하는 것이 힘들지 않냐고 묻자 뎀버들은 씩씩하게 웃었다. 김윤규(정치외교 4)씨는 “사실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그래도 좋은 책을 읽고 교수님과 함께 학우들과 토론할 수 있어 너무 좋다”고 말했다. 전공공부를 더 심화시키기 위해 만든 스터디 모임도 있다. ‘Studio 403 Story’는 공대1호관 403호실을 같이 쓰는 학생들끼리 만든 모임이다. 멀티미디어학을 전공하고 있는 그들은 “전공 특성상 3D 프로그램을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알아야 하는데 아직 부족해 모임을 결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거뿔거뿔 나온 수염이 집에 며칠은 족히 못간 것으로 보이는 강동우(멀티미디어 3)씨. 그는 “집에서는 잠만 자고 하루종일 학교에 산다”며 스스로를 ‘학교 폐인’이라고 말했다. 놀고 싶은 생각은 없냐고 묻자 그는 “놀 때가 아니다. 넘치는 열정으로 학업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며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미대에서 올해 전과 했다는 고영빈(멀티미디어 3)씨는 “미대에서는 붓만 잡았는데 마우스를 잡고 작품을 만들려고 하다보니 따라가기 힘들었다”며 “이번 방학 때 코피를 쏟는 한이 있더라도 3D 프로그램을 정복하겠다”고 말했다. 어떤 방식으로 학업에 매진하든 그들 모두에게 미래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다. 무정하게 쏟아지는 뜨거운 햇빛은 나뭇잎도 움츠리게 하는데 어떠한 것에도 지치지 않는 그들은 여름보다 더 뜨거웠다.

현성미 기자

생협 내년 1월 신설... 복지향상 위해

구성원 쌍방향 소통이 관건

소비조합이 내년 1월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소비조합은 학내 구성원들에게 학교생활에 필요한 편의 등을 제공하고 외부 업체들의 과도한 가격책정으로 피해받지 않도록 1983년 만들어졌다. 이렇게 출범한 소비조합은 28년 동안 구성원들에 복지향상을 위해 힘써왔다. 기존 소비조합은 학생회관에 구내 식당을 비롯해 한라홀, 아라홀, 종합매점, 해양대매점 등과 교내에 배치된 자판기를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학생들의 장학금과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됐다. 그러나 소비조합은 임의조직체로 적법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또 조합원들의 출자 없이 운영되다보니 구성원들이 소비조합 운영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의사반영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2010년 10월 개정·공포된 소비조합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에 따라 소비조합의 형태로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우리대학은 소비조합을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으로 전환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대학은 김종훈 학생처장을 위원장으로 한 생협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생협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생협설립준비위원회는 교수 3인, 직원 3인, 학생 3인, 소비조합 1명으로 구성돼 운영 중이다. 현재 생협설립준비위원회는 발기인회 준비와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복지과는 생협이 출범하게 되면 공동으로 물품을 구매해 값싸고 다양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생협은 학생과 교수, 교직원들이 직접 출자금을 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를 통해 대학구성원들은 돈을 내는 출자자이면서 스스로가 운영자이고 스스로가 이용자가 된다. 즉 구성원들이 직접 출자와 운영, 소비에 모두 참여함으로써 대학구성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아직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생협의 출범은 물론 생협의 개념이나 장점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신준혁(정치외교 3)씨는 “소비조합이 생활협동조합으로 바뀐다는 이야기를 전혀 몰랐다”며 “생활협동조합이 어떤 것이고, 장점들을 학생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생복지과 변수철 팀장은 “현재 생협 전환을 담당하던 직원이 장기출장을 가게 돼 친척이 늦어지고 있다”며 “새롭게 담당자를 선정해 정해진 기간 내 생협을 출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보배 기자

9개 기업과 스마트그리드 인력양성 협약

제주대와 기업들이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사업 추진에 따른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제주대는 지난 13일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청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스마트그리드 인력양성)에 참여하는 9개 기업과 제주지역 스마트그리드 맞춤형 인력 양성 및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청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스마트그리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 양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대학,기업,행정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주)대경엔지니어링(대표이사 김대환), (주)대성정보기술(대표이사 박병철), (주)도암엔지니어링(대표이사 오관준), (주)섬엔지니어링(대표이사 현규남), 신원피엔지(주)(대표이사 고영수), (주)인포마인드(대표이사 강희석), 자바정보기술(주)(대표이사 박상렬), (주)진주소프티



제주대는 지난 13일 본관 2층 회의실에서 9개 기업과 제주지역 스마트그리드 맞춤형 인력 양성 및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노베이션(대표이사 이무용), 한라 LED조명(대표이사 박찬오) 등 9개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인턴십 및 취업 지원, 교육과정 공동운영, 협동프로젝트사업 공동 지원 등에 서로 협력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제주대와 참여기업들은 박경린 제주대 취업전략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스마트그리드 인력양성 사업단’을 구성하고, 사업 책임교수, 관련학과 전공 교수, 참여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가동한다. 사업단은 전기공학과, 기계공학, 전산통계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교육과 등에 소속된 2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50시간의 교육훈련을 마친 후 참여 기업체에서 현장실습(인턴 포함)을 실시함으로써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사업 추진에 따른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뉴스 클리핑

제주중부로타리클럽 발전기금 1000만원 기탁



제주중부로타리클럽(회장 좌중언)은 지난 13일 총장실에서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발전기금은 2011년도 제주대학교 해외봉사활동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이 자리에서 좌중언 회장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종훈 학생처장, 세계 100대 교육자 선정

김종훈 교수(영어교육)가 국제인명센터(IBC)로부터 ‘2011년 세계 100대 교육자’로 선정됐다. IBC의 21세기 탁월한 지식인 2000명에 등재된 데 이은 또 한 번의 영예다. 이에 앞서 김 교수는 2010년부터 2년 연속으로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에도 등재된 바 있다. 김종훈은 그간 「영어음운론」, 「영어음성학」, 「영어음운론」, 「영어음성학」, 「영어음성학」, 「제주국제자유

지에서 언어정책」,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영어교육」 등의 저서를 발간하며 영어학 이론을 영어 교육과 실용적으로 연계시키는 데 힘썼다. 이와 함께 그는 제주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11 한국융합학회 하계학술대회 개최

제주물산업인재양성센터가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을 위한 융합기술전략을 주제로 ‘2011 한국융합학회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한국융합학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첨단기술간 융복합 기술뿐 아니라 이를 통한 제주물산업 발전전략 수립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학회에는 방사능 치료에 효과적인 ‘제주산 감태 추출물 후코이단’을 이용한 올레자 개발’을 주제로 2011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한

문상을 수상한 에듀워터(eduWater)팀 학생들과 ‘제주도 지질 지하수 정보시스템 구축’을 수행했던 학생들이 직접 참석해 프로젝트 수행결과를 발표했다. IT, BT, CT, NT 등 첨단기술간 융복합 기술을 비롯해 제주물산업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특별세션도 마련돼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시부문에서는 백경아(국어국문 3)씨의 작품 ‘너의 말은 가재가 되어’와 김소학(국어국문 4)씨의



지난 3일부터 경기대에서 열린 2011 관광학 국제학술대회 행사장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왼쪽부터 김영남(관광경영학과 대학원 박사수료), 김세미(관광경영학과 대학원 석사학위), 김은희(독일 4), 현석영(관광경영 4) 학생.

관광경영학과, 우수 논문상 수상

관광경영학과(학과장 서용건) 대학원생 및 학부생들이 지난 3일부터(사)한국관광학회 주최로 열린 ‘2011 관광학 국제학술대회 및 제70차 한국관광학회 연구논문 발표대회’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과 박사과정 김영남씨와 석사과정 이의희, 김세미씨가 쓴 논문 ‘미로공원 방문객의 플로우(flow)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플로우 이론을 미로공원에 적용해 방문객 만족도 향상 등의

마케팅 전략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대학생 제안서 부문에서 이동구(관광경영 4), 현석영(관광경영 4), 김은희(독일 4) 학생은 ‘따라오세요! 지역기반형 안내표지판 개발 : 제주도 관광안내표지판 이미지 분석을 중심으로’를 통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내용은 제주 방언을 통해 관광안내표지판을 만들으로써 창의성과 실용성이 돋보이는 제안서로 평가받았다.



제주대신문사에서 주최한 제31회 백록문학상 입상자가 발표됐다.

김소학 학생, 백록문학상 당선

언론미디어센터(주관) 고희성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주대신문사에서 주최한 제31회 백록문학상 입상자가 발표됐다. 시부문에서는 백경아(국어국문 3)씨의 작품 ‘너의 말은 가재가 되어’와 김소학(국어국문 4)씨의

‘4월, 뱃바다를 밟아’이 공동으로佳作에 입상했다. 소설부문에서는 김소학씨의 작품 ‘클라라 하스킬을 위한 하루’가 당선됐다. 각 부문별로 수상자에게는 총장상 3)씨의 작품 ‘너의 말은 가재가 되어’와 김소학(국어국문 4)씨의 상금이 지급됐다.

건강증진연구실, 초등학생 건강캠프 개최

건강증진연구실(책임연구자 제갈윤석 체육학부 교수)은 다음달 1일부터 26일까지 ‘2011년도 제주지역 초등학교 건강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건강캠프는 제주지역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 가운데 체질량

지수 22kg/㎡ 이상인 어린이, 건강증진 프로그램 기간 꾸준히 참석이 가능한 어린이, 근골격계 질환이 없는 어린이, 다른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주 3회(월, 수, 금) 운영된다.

하루 일과는 오전 9시~12시까지 3시간 가운데 2시간은 운동 프로그램, 1시간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건강캠프 참가를 희망하는 어린이는 오는 22일까지 제주대 건강증진연구실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체육학부 754-3582.



제주대학교(총장 허형진)는 JDC·제주의소리와 함께 학생들에게 국제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미래지향적 마인드를 키워주기 위해 대학생 아카데미를 마련했습니다. 국내의 명강사를 초청해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학생 아카데미는 지난달 14일까지 1학기 동안 총 13강좌가 열렸습니다.

뉴패러다임이 재도약 이끈다

디지털 시대의 창조적 리더십

이금룡 코글로닷넷 회장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대학을 졸업하면 적어도 40년 이상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 여러분은 40년 동안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들어선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생활 동안 많은 것들을 경험해야 하며 배워야 한다. 그 배움은 사회 변화의 흐름을 읽는데서 출발한다. 우리사회에서의 핸드폰 변화를 보자.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2007년 아이폰을 만들었다.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제조하기 시작한 지 25년이 흘렀다. 삼성전자의 휴대폰 생산대수는 연평균 3억2000만대에 달한다. 1만 명이 넘는 연구원이 수만 개의 특허와 기술을 확보한 결과이다. 성균관대는 휴대폰학과까지 있다. 그런데 최근 삼성이 큰 수모를 당했다. 휴대폰 산업에 뛰어들지 4년도 안 된 애플이 소송을 건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미국 법원은 삼성에게 판매 예정 제품을 법정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LG전자는 2년 전만 해도 분기별로 2000억의 흑자를 냈지만 현재 적자만 4000억이 넘는다. 당연히 스마트폰 판매업체 톱 10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휴대폰의 오랜 강자 노키아도 신용이 떨어져 아무도 주식을 사지 않는 기동으로 전락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2~3년 안에 벌어진 일이다.

기업에게 닥친 환경의 변화는 상상을 초월한다.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이라도 변화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다가는 곧바로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러나 너무 걱정만 하고 앉아 있을 필요는 없다. 위기와 변화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일정한 규칙과 트렌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규칙과 트렌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정복하는 자는 승리자가 된다. 반면 과거의 영광에만 사로잡혀 있는 자는 패배자가 될 것이다. 삼성물산에서 15년 이상을 근무하고, 지난 12년 동안 벤처기업으로 삼다 보니 변화 속의 생존법을 나름대로 터득하게 됐다. 바로 사회 변화의 물결과 함께 하면 된다. 현재 변화의 트렌드는 지식, 스마트, 창조, 상상의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건설 분야에 너무 치중하는 우리 사회의 미래는 불안하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선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고수와 프로가 필요하다.

내일의 주인공은 내일을 준비한 사람이다. 내일의 주인공이 되려면 내일의 변화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차지하는 것이다.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다. 끊임없이 방향을 읽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그 사회 변화의 방향을 커다란 ‘물결’로 쉽게 설명한 사람은 <제3의 물결> 저자인

앨빈 토플러이다. 토플러 박사가 1980년 제3의 물결을 쓰면서 새로운 물결이 오면 스스로가 그 것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제1의 물결은 농업혁명. 처음 농업이 1만년 전에 시작되면서 인구가 늘고 식량 경작을 위해 마을이 만들어졌다. 이 때 사람들의 관심 영역은 토지다. 제2의 물결은 제조업의 시대다. 제3의 물결은 정보화다. 1975년부터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한다. 상업고등학교가 정보고등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회사엔 정보실이 생기는 식이다. 통신의 발달로 정보화가 급물살을 탄다. 정보화의 물결은 초고속 통신망과 모바일 두 가지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초고속 통신망이 생기면서 월드 와이드 웹(WWW)이 브라우저 등을 통해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다. 이곳에서 새로운 경제 영역이 생겼다.

앨빈 토플러는 1980년 제3의 물결을 예언했고, 실제로 산업은 점점 첨단화와 고도화됐다. 컴퓨터가 주도한 정보와 지식의 물결은 그렇게 일어났는데, 1975년 정보시스템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당시 미국에서 생겨난 회사가 IBM, MS, 오라클, HP 등이었고, 한국에선 삼성SDS, LGCS가 태동했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컴퓨터 산업은 통신혁명을 견인했다. 초고속 통신망(유선)이 나오며 인터넷이 가능해지자 사이버 공간이 생겨났다. 이것은 또 다른 변화를 이끌어냈다. 사이버 공간에 수많은 콘텐츠, 제품,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당시 미국에선 아마존, 야후, 구글, 이베이 가 탄생했고, 한국에서는 다음, 네이버, 옥션, 엔씨소프트 등이 등장했다. 이후 수많은 청년들이 테헤란벨리로 뛰어들어 연구에 몰두했다. 이른바 벤처 열풍이 한국을 강타했다. 그리고 불과 12년 만에 프로야구 9구단을 창단할 정도로 성장한 엔씨소프트 같은 벤처기업을 배출하기에 이르렀다. 처음 옥션을 만들 때만 해도 오프라인 백화점이 부러웠다. 하지만 지금은 도리어 옥션의 매출 규모가 롯데백화점을 3배나 앞지르고 있다. 금융도 인터넷으로 옮겨갔다.

인터넷의 새로운 세상은 계속해서 진화한다. 유선혁명을 기반으로 무선혁명이 일어났다. 모토로라가 세계 최초의 아날로그 휴대폰을 제작한 것이 1973년인데, 마침내 1994년에 디지털 휴대폰이 등장했다. 본격적으로 휴대폰 사용이 확산된다. 노키아, 삼성, LG가 세계 디지털 핸드폰 시장을 석권한다. 삼성과 LG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것도 이때다. 유럽은 노키아의 GSM 방식을, 미국과 한국은 CDMA 방식을 선택했다. 당시 삼성과 LG는 독자적인 CDMA 기술을 가지고 애플과 싸이언을 생산해 세계적 기업이 된다. 하지만 2010년 스마트폰이 트렌드를 주도하며 다소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려면 독자적인 운영체제(OS) 기술을 보유하는 것이 관건인데, 2007년 아이폰이 첫



이금룡 코글로닷넷 회장

선을 보였을 때 곧바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현 정부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다른 부처에 통합한 것이 못내 아쉽다. 담당 부서가 없으니 대응도 못하고 책임도 묻지 못한다.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이 부족해진 삼성은 최근 중소기업에서 6000여 명을 스카우트했는데, 이것이 중소기업의 쇠퇴를 가져오는 악순환을 낳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이폰 국내출시 7개월 만에 삼성이 갤럭시S를 내놓았다는 사실이다.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방향을 짚어내는 지도자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은 ‘제4의 물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었다. 현재 제3의 물결이 종결되고 제4의 물결이 시작되려는 순간이다. 이 물결이 어떤 형태로 움직일 주도할 준비를 해야 한다. ‘제4의 물결’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은 덴마크의 미래학자 올프 안센이다. 그는 ‘인간 중심의 사회’를 강조했다. 특히 인간이 가진 감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감성이 감동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감성이 감동으로 옮겨가는 길목에는 스토리텔링이 있다. 예컨대 현재 국내의 지방자치단체는 스토리텔링을 찾느라 혈안이다. 제주도는 최근 유배길을 개발했는데, 투사 감정표 8년 3개월 동안 제주에서 머물 때 지냈던 곳과 먹었던 음식을 재현한 길이었다. 이렇게 제4의 물결 시대에는 감성과 인간 중심의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제4의 물결이 중시하는 또 하나가 브랜드이다. 위대한 기업은 자사 상품의 브랜드를 듣는 순간 고객의 감성을 움직여야 한다. 사실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다. 첫째, 고객이 기업의 이윤을 걱정할 정도로 싼 가격이다. 둘째, 다른 제품을 사고 싶어도 도저히 살 수 없는 시장 독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앞에서 언급한 브랜드이다. 고객의 감성을 터치하는 뛰어난 브랜드는 상품의 장점과 특성, 경쟁력과는 무관하게 그 브랜드 하나 자체만으로 구매를 이끌어낸다. 브랜드가 중요한 세상에 사는 우리는 자기 이름 석 자의 중요성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정용복 언론미디어팀장

삶에 쫓겨도 시인의 마음 지녀야

시에게 길을 묻다

도중환 시인

시는 쓰는 사람들은 주위를 발견하고, 창조하는 사람이다. 남들은 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시인은 눈여겨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려고 한다. 어려서 충청도 산골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교직 생활을 하면서도 주로 시골마을에서 지냈다. 그런 생활과 경험 때문인지 자연의 변화에 민감하다. 자연을 바라볼 때는 그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변화를 읽어내려고 한다. 내륙에서는 매년 4월 20일을 전후로 변화가 가장 심한 시기이다. 이때는 모든 나무가 연두빛 잎을 만들어내고 산꽃들이 파스텔 그림을 만들어낸다. 이 모습들을 글로 표현하기가 어렵고, 그림을 그리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기에 자연을 감탄하게 된다. 무릇 동물의 새끼들은 모두 예쁘다. 작고 둥그란 머리 모양에 앙증맞은 입, 머리 눈에는 새끼의 모든 것이 아름답다. 4월 20일 전후에 자연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나무들도 초록의 잎들이 돌아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예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연두는 초록의 어린 새끼다. 나무의 변화를 시작하면서 땅 밑에는 아주 작은 꽃들이 돌아난다. 냉이꽃, 꽃다지, 민들레꽃, 제비꽃 등 인사를 나눈 적 없는 곳까지 찾아가 이름을 부른다. 소설가 박완서님은 자신의 정원에 핀 꽃들을 향해 출석을 불렀다고 한다. 올해도 자신의 마당에 다 왔는지 이름을 불러보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출석했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나도 앞마당에 핀 꽃들의 이름을 불러본다. 출석을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꽃들 중에 제일 큰 꽃이 민들레꽃인데, 그 보다 작은 꽃다지, 제비꽃을 향해 ‘지금 피은 꽃이 최선입니까. 확실해요’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이 꽃들은 ‘네, 최선을 다해서 피웠습시다’라고 대답한다. 지난 겨울 대단히 추웠다. 우리 집 앞마당에 밤나무는 얼어 죽었다. 팽나무도 냉해 때문에 지난 주에야 잎을 피웠다. 팽나무 옆에서 박수를 쳐줬다. ‘잘했다. 잘했어’. 여러분에게 꽃과 나무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관심을 주면 그들도 나에게 관심을 갖는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하나의 대상일 뿐이다. 그러나 내가 사랑스러운 눈길로 꽃과 나무에게 이야기를 건네면, 그들도 우리한테 대답을 해준다. 꽃이 피어있으면 기쁘다. 그 옆에서 같이 있고 싶어주는 것은 법정 스님이 말한 ‘인간 내면에 꽃다운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고은 선생님은 책을 정말 많이 낸다. 지난 해에도 만인보라는 30권의 시를 썼다. <그 꽃>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아주 간단한 시이다. 그러나 많은 것을 읽어낼 수 있다. 같은 꽃인데 왜 올라갈 때는 보지 못했을까. 열심히 올라가

다보니까 밑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려올 때는 여유가 생기니까 꽃이 보이는 것이다. 여유가 있으면 꽃이 꽃으로 보이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면 비로소 사람이 고맙고 소중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다. 올라갈 때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정신없이 바쁠 때는 주위의 고마운 사람들을 보지 못한다. 우리 주위에는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고마워야 할 사람이 많다. 그러나 내가 올라갈 때 쫓기는 인생을 살 때는 주위를 살피지 못한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시간과 일에 쫓기고 고마운 것을,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쓸모 있고 가치 있는 삶인지지를 되돌아봐야 한다. 인간인 사람들은 말을 타고 빠르게 갈 길을 재촉하려다도 갑자기 멈춰 선다고 한다. 이유는 자신의 영혼이 빠른 말을 쫓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세상을 급하게 살더라도 정신과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성진 시인의 <벌레 먹은 나뭇잎>이라는 시를 보자.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다/ 귀족의 손처럼 상처 하나 없이 매끈한 것은/ 어저치 베를 줄 모르는 손 갈아서 밍다/ 딱딱나무 잎에 벌레 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으로 하늘이 보이는 것은 예쁘다/ 상처가 나서 예쁘다는 것이 잘못된줄 안다/ 그러나 남을 먹여 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벌처럼 아름답다. 보통 사람들은 벌레 먹은 나뭇잎을 아름답게 보지 못한다. 그러나 이성진 시인은 벌레 먹은 나뭇잎을 예쁘다고 한다. 그 이유는 남을 먹여가며 살아가려는 아름다운 마음을 지녔기 때문이다. 시인의 눈을 회복하면 주위가 세상이 고맙고 예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인의 눈을 회복하길 바란다.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를 보자. 연탄대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시는 참 짧다. 단지 32자에 불과하다. 하지만 내용은 강렬하고 뜨겁다. 타고 버려진 연탄 한 장. 길가에 아무렇게나 나뭇구는 창백한 연탄 한 장은, 그러나 한 때는 누군가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방 아랫묵을 뜨끈하게 덥히며 ‘배 부르고 등 따뜻함’ 행복을 누리게 해주었던 소중한 존재였다. 눈 쌓여 미끄러운 골목길에서 사람들이 마음 놓고 걸어 다니라고 마지막 몸을 산산이 부숴 끼여가 제가 되어주던 고마운 존재였다. 살아오면서 나는 과연 한 번이라도 누구를 위해 그토록 거위와 본 적이 있었든가?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온기를 제공해주고 누군가에게 아늑한 행복을 선물하는 그런 고마운 존재가 되어본 적이 있었든가?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뜨겁게 살기 위해서이다. 그리하여 마지막 한 줌의 재로 돌아가기 전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이 세상에 기여하고 공헌하며 살아가기 위해 온 것이다.



도중환 시인

그러나 살다 보면 세상에 기여하거나 헌신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의 삶을 추스르기조차 힘겨워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채 하루하루를 연명하기에 급급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하지만 천만다행인 것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직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재발견하고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앞으로의 삶의 가치는 자명하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삶을 불태워 세상에 온 이유를 온 몸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오늘을 생의 마지막 하루인 것처럼 뜨겁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 주위에는 연탄대 같은 사람들이 많다. 바로 우리의 어머니다. 이 분들을 생각하면서 연탄가는 남을 위해 희생적인 삶을 살자는 메시지를 시인은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시인은 남들이 하찮다고 생각하는 것을 눈여겨보는 사람이다. 그 안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아보자는 것이다. 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다.

인생의 좌절이 나를 여기까지 밀고 왔다. 2009년 직장인 103만 명이 뽑은 ‘내 인생의 시’인 ‘담쟁이’를 비롯해 해마다 5000부에서 1만부 가까이 팔리고 있는 시집 ‘접시꽃 당신’ 등의 인기의 바탕에는 좌절이 있다. 내가 울면서 쓰지 않은 시는 남들도 울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내 문학은 나의 울음이다. 부모와 떨어져 가난을 안고 살아온 어린 시절, 대학 졸업 후까지도 이어진 방황, 결혼 후 2년 반 만에 암으로 떠난 아내, 그에게 찾아온 병과의 투쟁 등. 왜 나한테 시련이 끊이지 않을까 원망을 많이 했었다. 하지만 곧 이를 고맙게 받아들이자는 생각을 했다. 몸에 병이 들어 깊은 산 속에 들어가 5년 정도 고독하게 지내야 했던 시절에도 평화롭고 고요한 곳에서 글을 쓸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감사하고 생각하기로 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부질없는 생각인 것이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항변도 무의미한 것이다. 그저 가만히 고통의 시간 앞에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용복 언론미디어팀장

출판부의 위상정립은 시대 변화의 과제

학문대중화 위한 재정지원 절실

타대학은 기획총서·브랜드 통해 활력

대학 출판부를 두고 어떤 대학에서는 우스갯소리로 계륵(雞肋)이라고 부른다. 출판부를 살리자니 기능을 못하고 없애자니 대학 체면이 안서는 것이다.

대학 출판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대학 출판부의 사회적 역할 때문이다. 사실 출판사는 돈이 되지 않는 도서를 출판할 이유가 없다. 대학 출판부는 학문과 사회의 문화발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셈이다.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가진 출판부가 예전 같지 않다. 작년도에는 4550만원이었던 출판부 예산이 올해는 2350만원(전년 대비 2200만원 감소)으로 줄어들었다. 무려 48% 정도 감소한 것이다. 줄어든 이유는 작년까지는 기성회계(등록금 중 학교의 시설유지보수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에서 출판부 예산이 할당됐지만 올해부터는 국고(일반회계)

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어떤 책을 얼마나 찍어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폭 삭감된 예산으로 작년과 같은 정도의 책을 출판하기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출판부 담당자는 “부족한 돈을 추가경정 예산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이 대폭 삭감된 현 상황을 보며 직전 출판부장인 이창익(일어일본학과)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나 학술원지정 우수도서로 선정되면 정부 지원을 받는 등 이득이 엄청나다”며 “출판을 담당 눈앞에 보이는 경제는 리로만 바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출판부의 발행권수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대학의 출판부가 침체에 빠지듯 가운데 제주대학교 출판부 역시 최근 들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대출판부에 따르면, 1984년 출판부

가 설치된 이래 지금까지 발간한 책은 총 176권에 이른다. 2006년 이전까지 발간된 도서는 138권에 이르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4년간의 발간 도서는 38권에 그친다. 한해 평균 10권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발간 도서의 양은 1998년의 발간도서 16권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 1998년의 발간도서 실적은 아직 정확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관계로 재고도서를 중심으로 파악한 수치일 뿐, 실제 발간된 도서 중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1999년의 재고도서도 11권, 2000년에도 10권을 상회했다. 2007년 출판한 책은 17권으로, 2002년(9권)을 제외하면 1997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10권 이상 출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들어 출판실적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 2008년인 경우 8권으로 전년도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작년에는 7권을 출판했다. 출판부 담당자는 출판권수가 적어진 이유는 교수들이 그만큼 도서 출판 신청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사실출판사에서 교재를 발행한 인본대학의 한 교수는 출판희망신청을 정해

진 시기에 하지 않으면 책을 낼 수 없고 출판부 인제가 사실 출판사에 비해 적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출판부의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제주대 출판부를 담당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1명이다. 출판 원고의 심사는 대학의 추천을 받은 각 처장, 부처장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심사위원들이 담당하지만 실무자 한 명이 출판업무와 도서교 정리는 물론 포장과 발송과 같은 판매까지 전담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학 출판부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 일단 교수나 강사들이 출판부에 더 많은 책 출판의 의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양대 출판부는 매년 우수원고(도서) 공모전을 열어 전임교원이나 시간강사가 좋은 원고를 써서 출판부에서 출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는 출판부가 다양한 장르의 책을 출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또 몇몇 대학들은 ‘○○대학교 출판부’가 아닌 자체적인 서브 브랜드를 만들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유익한 교양서적과 아학서적 등을 발행하고 있다. 이와예대 ‘글빛’ (문예출), ‘E-Press’ (이학



최근들어 출판부의 출판실적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출판부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학교당국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서), 건국대 ‘쿠북’, 성균관대 ‘수북’ (일반대중 교양서) 등이 그 예이다. 이는 서울권 대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영남대는 知&知(지앤지)라는 브랜드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또한 보다 더 다양한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 성균관대 출판부 담당자는 “매년 9월 마포구 홍대 앞거리에서 열리

는 ‘와우북 페스티벌’에 참가해 소비자들에게 발행한 책을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서울대 출판문화원(출판부)나 영남대는 인터넷 서점을 열어 인터넷으로 소비자들이 쉽게 출판한 책의 정보를 얻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명지 수습기자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엔 꾸준한 운동이 최선

악슬기고

운동과 골다공증

제가 정형외과 과장 및 정형외과학교실 주임교수도 같이 하고 있고 오즈음은 제주대학교병원 PI실장으로 오는 10월을 병원 인증평가 준비에 여념이 없다.



남광우 의학전문대학원 정형외과학교실 교수

저는 고관절, 인공관절성형술(고관절, 슬관절), 골다공증, 노인 골절 및 근골격계 질환, 골연부조직 종양과 출기세포등을 전공하고 있다.

이번 원고에서는 운동과 골다공증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한다.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더구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빠른 나라 중의 하나이다. 이에 최강들이 골다공증의 유병률도 인구의 고령화에 더불어 증가하고 있으며 골다공증으로 유발되는 질병들로 인해 막대한 의료,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여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와 골밀도가 감소하여 쉽게 뼈의 골절이 일어나는 뼈의 취약성이 증가하는 질환이다. 따라서 골다공증 자체는 무증상의 질환으로 골절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기때문에 간과되거나 무시되어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골다공증의 진단에는 일반인들 특히 65세 이상 사람들이 골다공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로 조기 진단 및 적절한 치료로 건강한 뼈의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골다공증의 치료로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포함한 약물 치료가 널리 알려져 있으나 이 외에도 바른 자세와 운동을 포함한 생활습관의 개선, 일광욕, 칼슘과 비타민 D의 복용 등 비약물 치료도 있으며 이 또한 골절을 예방하는데 중요하다. 그 중에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기위한 운동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여 보겠다.

운동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지난 20년 동안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었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운동의 가치에 대해서는 점점 논란이 줄어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운동은 5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이성을 가지고 있으며(테니스 선수가 많이 사용하는 손목 뼈가 다른 쪽 손목보다 강한 것이 예이다)

과부하를 해야 하며(일정 역치를 넘는 운동을 해야 효과가 있다) 골밀도가 낮은 사람에게 더 효과적이지만 한계가 있고 (운동으로 골밀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가역적이다(운동을 중지하면 운동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얼마나 길게 어떤 방법으로 운동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무중력의 수영보다는 걷기, 에어로빅, 웨이트 트레이닝, 달리기, 스퀘시 순으로 중력 부하가 증가하고 운동이 격렬해질수록 골밀도를 증가시킨다.

운동의 방법이다. 골강도를 증가시켜 놓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부터 체중부하 운동으로 최대 골량을 높여 놓아야 한다. 따라서 노년기에 골량 감소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기 때문에 이를 보상할 수 있다. 즉 성장기의 운동이 그리고 폐경 전 운동이 더 큰 골량을 얻는데 더 효과적이다. 운동의 강도는 지표면 반향력의 2배 이상, 체중부하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을 하루 30분 이상, 1주일에 3회 이상 실시하고 근육의 무게도 골량을 증가시켜주니 웨이트 트레이닝도 같이 한다. 그러나 너무 과다한 운동은 오히려 악영향을 끼친다. 여성 운동 선수에게 나타나는 3정후 즉 섭식장애, 무월경, 골다공증이 대표적인 예이다.

운동 프로그램은 표1과 같이 하는 것이 권장된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 그리고 유연성을 길러주는 운동을 병행하되 최대 역치의 50%~70%로 주 3회 30분씩 실시한다. 나이에 따른 운동을 정리하면 청소년기까지는 고강도 체중부하 운동으로 최대 골량을 증가시키고 중년에는 조직적인 체중부하 운동으로 골량을 유지하며 폐경 이후에는 자세 유지, 스트레칭, 균형 감각 증진 운동, 전신 근력 강화 운동으로 낙상과 골절을 예방한다.

사실 골다공증 자체는 무증상의 질환이지만 이로 인해 초래되는 골다공증성 골절은 높은 유병율과 사망률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로도 막대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 골다공증성 골절을 최일선에서 치료하는 정형외과 의사로서의 경험에 바탕을 둔 시각으로 이제까지 알려진 WHO나 나라 교과서 내용이 아닌 골절 치료 의사의 시각으로 접근하여 보겠다. 이는 정형외과 의사의 입장에서 과연 운동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있는가 하는 것이다.

골다공증은 큰 외상없이 골절이 발생하는 증상이 없는 질환으로 좁은 의미의 진정한 골다공증은 골절이 일어나고 난 후에나 진단

운동종류	목표	강도/빈도/운동시간	목표 달성 시간
유산소 운동 -도보, 자전거, 수영	유산소 운동력 유지, 향상	-최대 심박수의 40-70% -주 3-5일 -20-30분씩	2-3개월
근력 -아령, 근력 운동 기구, 마루 운동	팔, 어깨, 다리, 힘근 향상, 고관절 굴곡근, 신전근과 허리 신전근이 중점 대상임.	-1 RM의 50% 또는 3 RM의 70% -8회 반복 하루 2-3번 -20-40분씩 주 2일	2-3개월
유연성 -스트레칭 -의자운동	관절가동범위 유지, 향상.	주 5-7일	

<표1> 권장 운동 프로그램. 유산소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 그리고 유연성을 길러주는 운동을 병행하되 최대 역치의 50-70%로 주 3회 30분씩 실시한다.

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골절 전에 진단하기 위하여 텍사스 같은 골밀도 검사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의 문제점은 단지 골밀도 양과 areal 골밀도만 측정하여 골의 구조, 기하학, 기계적 특성은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의사들은 WHO의 권고안을 전적으로 믿고 그 기준으로 텍사로 측정한 골밀도로 양적인 측면에서 골다공증과 골감소증을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른 시각도 엄연히 존재한다. 바로 실제로 골다공증성 골절을 직접 접하는 정형외과 의사의 관점으로서의 생리적 골감소증과 진성 골다공증이다. 정형외과 의사의 프로스트가 처음 주장한 이 접근 방법은 기존의 WHO나 헤리슨 내과 교과서가 아닌 정형외과 의사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BMD(bone mineral density)가 아닌 골의 기계적 강도에 주목하여 골감소증은 다른 이들에 비해 골 강도는 낮으나 그 사람에게는 기계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고 골다공증은 골 강도가 기계적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하여 작은 외상에도 쉽게 부러지는 상태이다.

따라서 정형외과 의사의 관점으로 다시 운동의 효과를 논하여 보겠다.

운동은 뼈에 상반된 2가지 효과를 가져온다. 일정 역치 이상의 긴장은 골의 형성을 촉진하여 골 강도를 증가시키나 반복되는 긴장은 미세 손상을 축적하여 피로 파손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운동은 재형성과 피로 골절의 상반된 면을 가지고 있다. 골 재형성 기전이 연령에 영향을 받는 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령의 고관절 골절에서 피로 골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이런 미세손상을 수복하지 못하는 것이 진성 골다공증의 중요한 특징이다. 따라서 오히려 운동은 골다공증성 골절을 유발할 수도 있다. 운동과 노화가 골량과 골구조에 미치는 서로 다른 영향에 대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더구나 운동에 상응하여 BMD의 증가가 골 강도의 증가를 반드시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비관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운동의 골다공증에 대한 효과를 발표한 문헌을 바탕으로 다시 알아보겠다.

유산소운동은 근력 방출과 힘이 낮은 것이 특징으로 오래 달리는 청장년층 남성에서 척추, 고관절, 종족골의 BMD를 증가시킨다고 발표되었다. 심한 운동이 어려운 고령에서는 에어로빅도 역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저항(길항)운동은 젊은 연령에서 골 종괴를 증가시키나 고령에서의 이 효과는 논란이 있다. 따라서 고령의 사람들에게는 저항운동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충돌운동은 특히 고충돌운동은 특히 골 종괴를 증가시키는데 유익하다. 사이클 선수나 수영선수보다 체조선수가 더 뼈의 강도가 큰 것이 예이다. 저항운동에 충돌운동을 가미하면 그 효과가 증대되는 것으로 보이며 빠른 속도로 저항운동을 하는 것도 유익하다.

진동운동은 낮은 강도로 고 빈도로 시행하는 것은 뼈의 직접 작용하여 뼈에 기계적 손상 없이 골형성 반응을 촉진한다. 고 강도로 진동운동을 하는 것은 근력을 강화시키나 위험할 수 있으며 저항운동과 진동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결론이다. 어떤 종류의 운동이 뼈의 강도를 증가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지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의 보고들은 고령에서도 운동에 의해 골형성 반응이 촉진된다고 제안하고 있다. 운동을 고 강도로 빈도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운동으로 뼈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평생 운동을 통하여 골소실을 예방하는 것이 더 쉽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운동이 골감소증을 개량하거나 예방할 수 있어 보이나 골절이 있는 진성 골다공증 환자들에게는 주의 깊게 운동을 처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환자들에게는 운동보다는 자세 교정 및 낙상 방지등의 생활 습관 교정이 더 중요하다.

컴퓨터 설계교육 담은 기본서

서평

현대 과학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컴퓨터, 정보통신등으로 불리고 있는 IT기술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같은 기술의 발전은 현대적 사회 변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관련 분야의 연구 및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힘든 것이 어제의 지식, 기술이 내일이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면서 확장되어 가는 경우보다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기술, 지식으로 다시 시작하여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는 것이다.

서평을 써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은 후에도 가장 고민되는 것은 과연 컴퓨터 관련하여 어떤 도서를 논하여야 할 것인가 고민에 빠져들었다. 오늘의 좋은 도서가 내일은 전혀 무용지물로 아무 쓸모없는 휴지조각으로 바뀌는 환경에서 말이다. 아무리 좋은 도서라도 이 분야의 수명은 보통 3, 4년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로 부터 사랑을 받고 읽히고 있는 책이 있어 본 서평에 추천하여 보게 되었다. 올해로부터 딱 35년 전인 것 같다.

이 책이 처음 출판된 것은 1976년으로,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CSU-LA)의 M. Morris Mano 교수에 의하여 쓰여진 'Computer System Architecture'라는 책으로서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 대부분의 대학의 컴퓨터관련 학과에서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봐야하는 기본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컴퓨터 하드웨어 설계분야에서의 바이블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라고 하면 그 안에 수백만개 이상의 트랜지스터를 집적하고 있는 수많은 IC 칩들로 구성되어 있는 매우 복잡한 시스템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만들 수 있을까? 매우 경이롭고 놀라운 기술이라고 단순히 치부하고 그것을 배우는 것조차 꺼려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도서에서는 이와 같이 복잡한 컴퓨터의 전체적인 시스템 설계과정을 마치 어린 아이들이 레고 조각을 갖고 자동차나 비행기를 만들어 가는 것처럼 쉽고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컴퓨터시스템을 중앙처리장치, 제어장치, 메모리 및 입출력 인터페이스로 나누고 각각을 레고조각 같이 기본적인 기능을 하는 회로들을 상호연결해



Computer System Architecture M.Morris Mano 지음

가며 전체적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의 구체적인 설계과정은 기본적인 연산회로와 이때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레지스터를 중심으로 한 정보의 흐름을 바탕으로 연산장치와 제어장치를 설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설계된 이론적인 컴퓨터시스템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Mano Machine 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가장 간단하면서도 체계적인 설계 접근으로 컴퓨터 하드웨어 분야의 초보자도 쉽게 컴퓨터 시스템 구조와 동작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이렇게 설계된 컴퓨터시스템을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그 동작을 기계어로 나타내고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에 속하는 기계어의 구조를 정의하고 이를 이용한 프로그램 기법과 보다 사용자 중심으로 표현되어 있는 어셈블리어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변환해주는 로레벨 언어번역기로서 어셈블러의 기능과 설계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컴퓨터시스템의 하드웨어 나 소프트웨어의 구조, 역할의 이해 및 전체적인 설계 및 동작 과정을 하얀 백지에 나무줄기를 그려 가듯이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시스템의 처리 속도 및 성능 향상을 위한 병렬처리시스템의 기본 개념을 보여주면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의 뒤를 이을 수 있는 후속서의 발간이 매우 아쉽다.

필자가 볼 때 물론 이 책은 컴퓨터라는 하나의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을 세 부적으로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핵심이 되는 나무줄기의 모습을 기본적인 동작 및 설계 원리를 이용하여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독자들이 완전한 나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밖에 잎, 꽃, 열매에 해당하는 세부적이며 추가적인 설계요소들을 다루어야 하는데 이는 독자들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처음 컴퓨터 설계의 전체 모습을 보고 싶은 독자에게는 본도서가 가장 적합하리라 평하고 싶다. 인기중(컴퓨터공학)교수

제주대학교59기수습기자모집

수습기자가되면

A급 장학혜택 장학금 및 취재료, 원고료, 식비 제공

다양한 취재 기회 제공

(미국,일본,중국 등 해외 원정 취재/국내외 다양한 기획 취재 및 연수제공)

멀티미디어기기 제공

개인 데스크 및 취재용 카메라, 편집용 컴퓨터

현직기자에게 배우는 기자교육 및 실습

(보도기사작성에서 보도사진 등)

차세대 신문제작 시스템을 이용한 신문편집교육

모집대상 : 아라캠퍼스, 사라캠퍼스 11학번 학생

원서마감 : 7월31일

장 소 : 본관 대학원동 3층 언론미디어센터 내 제주대신문사

문 의 : 제주대 신문사 (754-2277)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언론미디어센터에는

꿈을 찾는 이들 꿈을 꾸는 이들 꿈을 만들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도...우리는 두근두근 가슴이 땁니다.

청춘 20대!

가슴뛰는 일상으로 바나나처럼 살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년들



등록금 충당 위해 알바 나선 대학생들

“알바하려고 대학 온 게 아닌데”... 돈벌이에 힘겨운 방학나는 청춘

● 등록금 마련 위한 알바연장

두 달이라는 긴 방학 기간, 잠시 숨을 돌릴 법도 한 데 오히려 학생들은 학기 때보다 더 분주해진다. 바로 ‘아르바이트(이하 알바)’ 때문이다. 요즘 교내 홈페이지의 생활 게시판은 알바를 구하는 광고와 이를 찾는 학생들로 늘 북새통을 이룬다.

학생이 이토록 알바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원인은 ‘등록금’에 있다. 학생의 신분으로 감당하기 힘든 등록금은 그들을 여지없이 노동 현장으로 내몰아 넣는다. 쉬지도 못하고 알바에 매진하는 대학생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알바 후 녹초가 되면 공부도 하기 힘들어요”
주점 알바-해양대학의 한 학생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은 그는 등록금을 벌기 위해 제주 시청 인근의 모 주점에서 서빙을 하고 있다. 그는 “여기가 그나마 시급을 많이 줘서 일하게 됐는데, 끊임없이 밀려들어 오는 손님 때문에 잠시도 쉴 틈이 없다”고 말했다.

인터뷰하는 내내도 손님이 계속해서 들어와 제대로 진행하기조차 힘들었다. 하다가 끊기고, 다시 하다가 끊기는 상황이 반복됐다. “부모님이 버는 월급만으로는 등록금 내기에 부족한 형편이라 내가 직접 알바에 나서게 됐다”고 말하는 그의 얼굴은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서빙 탓에 무척 고단하고 지쳐 보였다.

그는 “알바 도중에 틈틈이 공부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보라”며 “한 달에 여섯 번밖에 쉬지 못하다 보니 공부는커녕 그나마 남은 시간에 잠시 토의 책을 들여다보는 게 전부”라고 답했다.

그의 근무 시간은 오후 7시에서 새벽 1~2시. 학기 중에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 2시 이후 밖에 없고, 방학 기간인 지금도 낮에 학원과 헬스를 다니다 보면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긴 마찬가지다. 새벽에 공부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손쉬운 알바도 아닌, 힘들기로 유명한 주점 서빙을 하고 난 뒤 정신이며 체력이 온전치 남아 있을 리가 없는 것이다. 그는 “새벽이라도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알바가 끝나고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그대로 쓰러져 버리기 일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에게서 일상의 자유란 뜬구름 잡는 소리나 다름없다. 친구들과 자주 만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학과 행사나 과모임 같은 데도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는 “최근 열린 초등학교 동창회도 꼭 가고 싶었는데 알바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제주대 등록금 낮은 편이지만 부담돼요”
편의점 알바-인문대학의 한 학생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는 여학생을 찾아갔을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인문대학의 한 학생이 계산을 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방학마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 도서관 대신 아르바이트 현장에 뛰어들어야 한다.

때, 그는 소위 ‘진상’이라 불릴 만한 아저씨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손님이 나가고 그는 “편의점은 유난히 이해 못할 손님이 많은 것 같다”며 “아직 학생일 뿐인 내가 이런 식의 홀대를 받는 것에 익숙해져 가는 게 서럽다”고 말했다.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알바를 시작했다는 그는 방학이 되자 시청 단지 알바까지 병행하고 있었다. 힘들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왜 안 힘들겠는가”라는 꾸밈 섞인 대답과 함께 “제주대 등록금은 타 대학 보다는 참 편이다. 그렇기에 더욱더 부모님의 손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돈을 마련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돈을 버는 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더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돈을 벌기 위해 맥했다는 야간 알바, 그러나 현실은 그의 의도와는 정반대였다. 녹초가 된 몸으로 학교에 가본 원지 않아도 잠은 쏟아지기 마련이다. 비몽사몽한 정신으로 수업을 듣는 등마는 등 하다가 다시 또 알바로 나서는 일상이 반복됐다. 자연히 학업과는 거리가 멀어졌고, 남은 건 스트레스와 피로 누적 뿐이었다.

그는 “야간 알바는 후유증이 굉장히 크고 길다”며 “내가 마치 인간이 아닌 기계가 된 기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간의 사람들은 여러서는 방법이라며 비웃겠지만, 막상 그만두기에는 내 자신이 불효자가 될 것 같은 느낌에 그만둘 수가 없었다”고도 말했다.

방학이 되자 학기 중보다는 상황이 나아졌지만, 시청 알바와 병행하다 보니 여전히 공부하기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그에게는 요즘 새로운 각오가

생겼다. 이달 중으로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고 학업에 열중할 생각이라는 것이다.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는 게 나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더 좋은 일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어떤 결연한 의지까지 엿보였다. 그는 “다만 나처럼 그래도 어느 정도 집안 형편이 되는 학생들은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은 이러한 선택의 여지조차 없을 수가 있다”면서 “그런 학생들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알바에 뛰어들어야만 한다”며 안쓰러운 심정을 내비쳤다.

“장학금 놓치면 방학 내내 알바만 해야 돼요”
연구소, 식당, 편의점 알바-공과대학의 한 학생

무려 3개의 알바를 뛰는 학생도 있었다. 학기 중에는 주말에 있는 편의점 알바만 하다가, 방학이 되자 연구소, 식당, 편의점 이 세 가지 알바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아침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의 연구소에서, 오후 7시에서 새벽 12시까지의 식당에서, 그리고 주말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그는 “하루에 적게는 15시간, 많게는 18시간 이상을 알바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입학한 이래 B급, 혹은 C급의 장학금을 꾸준히 받아왔음에도 알바를 멈출 수 없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받는 한 달 알바비는 고작해야 100만 원 남짓.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으로 인한 턱없이 적은 액수인 것이다. 그나마도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니기에 망정이지, 그마저 없다면 그의 삶은 한층 더 수난에 가까워지고 만다. 그는 “만약 장학금을 놓치면

다시 방학 중에 꼼짝없이 여러 개의 알바를 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며 자조했다.

최근에는 장학금이 C급일 경우를 대비해 학자금 대출까지 받아놓았다는 그는 “졸업하고 나면 이자가 붙어서 졸업 전까지는 다 갚으려고 한다. 그 때문에 알바를 계속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입학할 때 대출받은 것까지 합하면 현재 그가 총 대출받은 금액은 무려 400여 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학생에게 있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액수. 이렇듯 저물든 결국 졸업하기 전까지는 ‘알바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등록금 벌기 위해 하루하루가 고역인 학생들
정부, 등록금 문제 해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이 이야기는 비단 위의 세 학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해 우리대학 신입생 중 300여명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취업 후 되갚는 ‘학자금 대출(ICL)’을 신청했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하루하루를 알바에 쫓겨 사는 수많은 학생들은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당연하게도, 등록금 인하에 관한 문제다. 제주대의 등록금은 한해 평균 402만원이다. 한해에 수의학과가 597만원으로 가장 많고, 교육대학이 292만원으로 가장 적은 편이다.

강유나(국어국문 1)씨는 “제주대의 등록금이 수도권 사립대와 비교해 높은 등록금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지만, 제주도민 1인당 개인 소득이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적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며 “이를 감안한다면 제주대 등록금이 결코 싸다고만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 지역 농가 부채가 항상 전국 1, 2위를 차지한다는 사실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러한 제주의 열악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가 적극적으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즉, 정부가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고 고등교육예산을 OECD 국가 수준으로 증액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적 부담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

양혜정(환경공학 1)씨는 “무엇보다 정부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고등교육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OECD 국가 평균 고등교육 예산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그의 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제주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알바에 내몰리는 현 상태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부하기 위해 들어온 대학,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대학의 등록금 때문에 이들은 정작 해야 할 공부를 하지 못한 채 돈벌이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

‘학생’이라는 자각 이전에 ‘알바생’이란 말이 더 귀에 익어버리고 만 이들. 오늘도 등록금 마련을 위해 수많은 학생들은 쉬지도 못한 채 부지런히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다.

김소영 수습기자

만화로 배우는 제주어

글/ 김순자(국어문화원)연구원
그림/ 허용준 특별기자

⑥테우다



날말 풀이
신다: 한테 · 에게, 강: 가서,
테우라: (물건 따위를) 나눠줘라
무사: 왜, 테왁시니?: 태우고 있니?
테와주렌: 나눠 주라고

‘반값 등록금 실현’ 촛불 시위... 정부·대학 함께 나서야

● 반값등록금 촛불문화제 연장

낮부터 오락가락 내리던 비는 안그래도 후텁지근한 여름을 더 짜증스럽게 만들었다. 지독한 열대야와 높은 불쾌지수는 시원한 실내를 떠올리게 할만도 한 데 지난 11일 제주 시청 어울림마당에는 초저녁부터 대학생들이 삼삼오오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날 저녁 7시 30분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촛불문화제’가 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열렸다. ‘반값등록금을 염원하는 제주도 대학생모임’과 ‘제주교육연대’가 함께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평소 등록금 때문에 힘들어하던 제주도내 대학생들이 참여했다.

대학생들이 주축이 된 이번 촛불문화제는 대학생 특유의 참신함을 엿볼 수 있었다. ‘등록금’, ‘반값등록금’으로 지은 삼행시, 오행시를 줄에 매달아놓고 제주대학생 10인으로 구성된 댄스팀이 댄스퍼포먼스를 선보여 거리를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시켰다.

이날 그들이 나섰던 주제는 ‘반값 등록금’ 문제였다. 비싼 대학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 하느라 모든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은 ‘학생답게 살고 싶다’며 다들 격양된 목소리를 냈다.

촛불문화제가 열릴 시간보다 훨씬 먼저 와 주최측을 자발적으로 돕고 있는 학생들도 만나 볼 수 있었다.

한시간 전에 도착해 준비를 돕고 있다는 신재호(관광대 방송사진영상 1)씨는 “이번에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 했는데 등록금이 260만원이 넘었다. 그 돈을 다 내려고 하니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고 부모님 도움

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럴 수밖에 없는 사회현실을 생각하니 ‘반값등록금 촛불문화제’를 적극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참여 동기를 밝혔다.

또 “주변 친구들의 경우 학자금대출 뿐만 아니라 일반대출까지 받아 학교를 겨우 다니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회에 진입하기 전에 벌써 신용불량자가 돼 있는 친구들을 보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어울림마당 한 칸에는 벤치에 앉아 자유롭게 얘기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었다.

강성준(인문홍보 1)씨는 “도내 대학생들은 대부분 경제 형편이 좋지 않다”며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학생들은 사람답게 살 수 없다”고 말했다.

박정은(행정 3)씨는 “제주대는 국립대라도 등록금이 비싼 편이라 생각한다”며 “주변에 문제의식을 갖고 이번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았는데 등록금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오늘 행사에조차 나올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촛불문화제에 온 대학생 중에는 다른 학생들보다 나이가 꽤 있어보이는 학생도 있었다. 박영훈(산업정보대학 경영 1)씨는 “서울에서 대학등록금에 허덕이다 결국 서울에서 대학을 마치지도 못하고 20대의 절반 이상을 보내버리게 됐다”면서 “그래도 대학에서 공부를 마쳐 보고 싶은 마음에 아무 연고도 없는 제주에 오게 됐는데 이 곳 등록금도 그렇게 찬 편은 아니다”라며 씩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대학생들은 마이크를 잡고 ‘왜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하는지’에 대해 일반시민들 앞에서 연설하기 시작했다.

자유발언에서 현치훈(사회 4)씨는 “감당하기 힘든 등록금을 벌기 위해 학생들은 하루종일 아르바이트



지난 11일 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열린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촛불문화제’에서 촛불을 들고 있는 대학생들. 연필을 들어야 하는 학생들이지만 그릴 수밖에 없는 현실은 그들에게 촛불을 들게 했다.

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면 공부시간은 굉장히 줄어들어 성적도 떨어지고 취업에도 영향을 끼친다”며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 MB정부는 반값등록금 공약을 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발언을 듣고 있던 청중들은 박수를 치며 “반값등록금 이행하라”는 구호를 함께 외쳤다.

김택찬(사회교육 1)씨는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형마트 냉동창고에서 일하다 숨진 황승원 씨에게 조의를 표하면서 발언을 이어나갔다. 자신을 서

귀포 출신이라 밝힌 그는 “서귀포 출신들은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느라 생활비 부담이 가중된다”며 “서귀포 출신 학생인 경우 부모님들이 대부분 농사를 짓는데 그 수입으로는 자식을 대학등록금을 감당하기 힘들어 부모도 동굴이 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발언이 끝난 후에도 청중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들에게 “정부는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비싼 등록금이 부득이하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2번째로 등록금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서울대, KAIST 말고는 세계 100대 대학에도 진입하지 못하

고 있다”며 열변을 토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반값등록금 문제에 공감하는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참여했다. 시민단체에서는 제주주민주치연대 노래모임인 ‘모다정’ 회원들이 현실 문제를 안타까워하며 노래공연을 선보였다.

모다정 멤버인 박유미(46)씨는 “등록금문제가 너무 심각해 이 자리에 안 나올수가 없었다”며 발언을 열었다.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보면 참 답답하다. ‘경쟁을 통한 성장’을 강조하는데 학생들이 경쟁하려면 최소한 대학등록금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면서 그는 “돈 있는 학생들은 걱정없이 공부할 수 있겠지만 돈 없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경쟁 속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학생들과 부모님들의 반값등록금요구는 과연 공허한 외침에 불과한 것일까. 김동주(대학원 사회학과 박사과정)씨는 “그렇지 않다”고 단호히 말했다.

“4대강 사업에 국가 예산 22조원이 투입되는데 반해,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7조원”이라며 “산전을 파괴하며 개발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인재육성을 위해 쓸 예산이 없다는건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21세기 지식사업을 위해서 국가는 창의적인 전문인력양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두시간 넘게 진행된 촛불문화제. 그들이 밝힌 촛불은 모두가 꿈꾸는 변화의 희망이었다. 불합리한 등록금 때문에 더 이상 신음할 수 없다는 그들은 “다음에도 광장에서 촛불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광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던 그들의 표정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다.

현성미 기자



무론유설

김현도
철학과 교수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심하고 현실사회에 둔감한 젊은이들이 촛불을 들었다. 미선이와 효순이가 미군 장갑차에 치어 꽃다운 목숨을 잃었을 때도,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온 나라가 들쭉날쭉 때도, 금수강산의 생태를 유린하고 환경재앙을 일으키는 4대강 개발에도, 청정한 평화의 땅을 중장비로 깔아뭉개 군사기지를 만들려는 국가권력의 횡포에도 애써 광장을 외면했던 그들이 아닌가.

등록금 문제가 그만큼 절박했던 터수라 여기자. 시급 3~4천원을 받으며 새벽같이 알바를 하다 지친 기색으로 강의실 구석 자리에서 졸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서 알바를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인지, 공부를 위해 알바를 하는 것인지 조차도 헷갈릴 때 세상에 대한 알 수 없는 적의를 느낀 적이 어디 한 두 번이든가.

이 ‘미친 등록금의 나라’에 마땅히 분노해야 한다. 지키지 않아도 좋은, 아니 지키지 않아야 더 좋은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의 다

반값 등록금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들

른 이름, 4대강 개발엔 목숨이라도 걸듯이 달려들면서 지켜야 할 반값 등록금 공약엔 어물쩍 넘어가려는 MB 정부의 뻔뻔스런 얼굴엔 침이라도 뱉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반값 등록금 투쟁이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라는 선언적 의제에만 매달려 천정부지의 등록금 그 이면에 있는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 대학에 몸담고 있는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쓴 소리를 하나 보낸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우리가 정작 제대로 알고 분노해야 할 것은 ‘미친 등록금의 나라’ 이전의 ‘미친 학벌사회의 나라’이다. 어디 한 번 곰곰이 따져보자. 세계에서든 유례없는 비싼 등록금의 나라와 세계에서든 유례없는, 80%를 웃도는 대학진학율, 이 두 지표 간의 매울 수 없는 괴리에 세계에서든 유례없는 공고한 학벌주의의 괴물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운집한 거리에 나가 ‘아이 대학생!’이라고 부르다면 아마 옆에 여덟, 아홉은 다 뒤돌 돌아볼 것이다. 전국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언제 이런 대학이 있었나고 고개를 가우뚱거리릴 생소한 이름의 대학 간판들을 자주 본다.

대학생이라서, 대학 졸업자라서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자체가 부끄럽거나 초라해 보이는 사회, 그러나 아무리 하찮게 보어도 대학 졸업장을 손에 쥐어야 그나마 사람 행세를 할 수 있는, 수확능력에 관계없이 들어오기만 하면 졸업이 보장되는 학벌사회의 구조적 병폐부터 바로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반값 등록금 타령을 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그런 구조악이 수백에서 수천 억의 적립금을 쌓아놓고, 부동산 투기나 일삼고 수익사업을 하며 고액 등록금으로 돈놀이해 혈안이 된 사이비 약덕 사학을 양산했다.

80년대 이후 우리사회에서 심화된 학벌주의의 비근한 예를 보자. 60~70년대엔 신규 은행원의 90% 이상이 고졸 출신이었다. 고졸의 학력이라도 일상의 은행 업무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80년대 이후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은행원의 90% 이상이 대졸 출신으로 충원되었다. 계산의 도구가 주판에서 컴퓨터로 바뀐 것 말고는 은행 업무의 질이 특별히 대졸 학력이라야 수행 가능한 정도로 변화된 것은 아니다.

공제로 임용된 5급 공무원(지금의 9급 공무원) 역시 90% 이상은 고졸 출신이었다. 상고를 나와도 고시에 합격하여 판사, 변호사를 거쳐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는 사회가 아니든가.

경제 성장의 속도를 앞질러 갈수록 학력 인플레이가 기형적으로 가속화되었다. 그것은 서울대를 정점으로 전국의 대학을 일렬로 줄 세우고,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실없이 몸집만 키워 대학을 오직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역대 정부의 파행적인 대학교육 정책이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다.

미친 학벌사회의 나라에 대한 근본적인 고뇌나 성찰 없이 등록금 문제만 부여잡고 있는 것은 증병으로 입원한 환자 앞에서 고액의 의료비를 초래한 발병의 원인은 도외시 하고, 병원비만 반값으로 깎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행정적인 통제는 강화하고, 재정적인 지원은 줄여 결국 부족한 재원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등록금 인상을 부채질 할 정부의 국공립대학 법인화에도 비판의 눈을 부릅떠야 할 일이다.

돌아보방

저는 이번 글을 통해 우리 대학에서 있었던 세 가지 사건에 대해 얘기하려 합니다.

한달 전쯤에 학생회관 2층 로비에서 ‘정주영 사진전’이 있었습니다. 불굴의 기업가 정신을 알려 대학생들에게 도전정신을 일깨우고자 마련했다는 이번 전시에는 꽤 많은 학생들이 몰렸습니다. 관람한 학생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글로벌 하우스에 있던 식당이 없어지고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 ‘세븐일레븐’이 생긴 일입니다. 그 근

처에 갈 일이 거의 없어 그렇게 바뀐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새 식사 시간에 그곳으로 향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학생들은 가까운 곳에 세련된 빵집이 생긴 것이 반가운 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웃으며 가더군요.

제가 앞에서 간단히 말한 이 두가지 사건은 큰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학생회관 같이 오픈된 장소에서 사진 관람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전시에 목말라 하는 대학생들에게 단비 같은 것이겠지요. 이왕이면 더 세련된 것을 추구하는 그들에게 깔끔한 인테리어의 빵집, 아이스크림집, 슈퍼는

아주 반가운 것일 겁니다.

그렇게 큰 일이 아닌 이 두 사건이 큰 일로 다가오는 것은 마지막 사건 때문인데 학생들 사이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가의 사진전보다 강경마을의 사진전을 더 원한다’, ‘힘없는 개인 가게들을 우뚝하는 글로벌기업이 캠퍼스 내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 등의 투쟁적 여론은 고사하더라도 최소한 우리는 얘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공간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이 옳은가 잘못되었나를 생각해보고 왜 그러한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대학의 주인인 학생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면 도대체 누가 얘기를 할니까. 위에서 하는 대로 내버려두 수수방관하는 태도는 주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비판의식 없는 무조건적인 수용은 우리가 스스로를 주체가 아닌 객체로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과연 담론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의 공간에 대한 아무런 얘기 없음은 슬픈 역설이겠지요. 우리들이 좀 더 자유롭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 다. 찬반이 오고가는 치열한 토론과 담론을 통해 더 나은 우리의 내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성미 사회부장



독짜기고

김덕한
사회교육 1

지난 1970년 국립공원 지정 당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위임받아 관리하던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업무가 제주특별자치도도 모르는 사이에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환경부로 환원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한라산관리권에 대한 행정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도민사회에 혼란과 허탈함, 그리고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환경부는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의결에 따라 국립공원 관리업무가 국가 사무로 환원됨에 따라 국립공원 관리업무 환원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난 4일 통보했

다.

이보다 앞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난 5월25일 중앙행정관한의 지방이양과 중앙행정 권한 중 지방위임사무의 환원 등을 심의, 85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립공원 관리업무 등 37개 사무를 국가로 환원해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로 결정,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에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의 국가 환원 여부에 대해 의견을 조희했지만 담당 부서에서 의견 제시하거나 관련 부서에 통보하지 않는 등 안일하게 대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업무의 국가 환원 결정이 내려지자 우근민 지사가 직

접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국무총리실, 환경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한라산은 지난 40년간 제주도에 의해 관리됐고, 도민과 함께 유네스코 트릴루 크라운을 이끌어내는 한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도 하나의 행정단위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환경부와 견해차를 좁혀나가고 있다.

황당하다 못해 어이가 없는 것은 관리권 환원 과정에서의 제주도는 이를 위한 노력을 ‘못한 것’이 아니라 ‘안했다’라는 점이다. 차라리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유가 있었다면 납득이라도 할 여지가 있었으나 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담당공무원의 직무태만에 의한 결과라고 평할 수밖에 없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특별조사에 착수했는데 이처럼 중요한 사안에 어떻게 지금까지 묻혀있었고 관련부서의 대응을 면밀히 따지고 잘잘못을 가려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며 2년차를 맞은 민선5기 ‘우근민 도정’은 이를 계기로 틀 전환을 통한 도민들의 신뢰회복과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할 것이다.

한라산은 우리 제주의 상징이자 핵심이며 한라산은 제주와 따로 구분하거나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동일체이며 우리 제주도와 도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보전하고 관리해야 나가야 할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투표에만 ‘올인’하지 말고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좀 더 신중을 가해야 할 것이다.



독짜기고

고은혜
사회 4

졸업을 앞둔 지금, 나의 대학생활을 하나하나 돌이켜 보면 중 일본에 연수를 갔던 기억이 난다.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나의 일본 체험기에 대해 쓰려고 한다. 일본에 가기 전과 다녀온 후의 차이에 대해 중점을 두겠다.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

일본연수를 하면서 공장, 소평물, 호텔 등을 가보아도 항상 느끼는 것은 깨끗하다는 느낌이었다. 호텔에서 항상 침대에 유카타(잠옷)가 놓여 있는데 그 위에 “Save mother earth program”이라 하여 유카타를 다시 세것으로 교체할 필요가 없으면 그 카드를 위에 놓아달라는 것을 보고 참 인상 깊었다. 내가 이들을 머물게 되면 하루정도는 바꿀 필요 없지만 항상 방을 청소하다 보면 세것으로 바꾸게 되어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 된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에 신경 쓰는 모습이 정말로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다.

나의 일본 체험기

일본어에 대한 도전

연수 전, 나는 일본어에 대해서 히라가나 하나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연수를 목적으로 글이라도 읽자 하는 심정에서 자기 전에 글자를 모두 외우고 갔었다. 그러나 정작 가서 보니 히라가나, 가타카나는 거의 보이지 않고 한자가 너무 많은 것이었다. 그리고 일본인과의 대화에서도 회화실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곤 했다. 사가대학의 전공강의에 대해서도 그렇다. 어떤 말인지 알았으면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연수 후에 내가 달라진 점은 일본어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큰 이득이 아닐까 싶다.

친절, 미소, 자긍심

일본사람들은 항상 “미안합니다”, “실례합니다”를 입에 달고 산다. 그리고 공공이나 소평물의 모든 직원들은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다. 이것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분 좋게 하였다. 자기 일에 소신을 갖고, 자부심을 가져야 만이 나올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

는 직업일지라도 자부심을 갖고 일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행동과 말투와 표정이 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나아가 일본전체의 이미지에도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도전과 체험

우리나라가 아닌 낯선 나라에 가서 7박 8일 동안 연수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말도 통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대학에서 일본어로 강의로 들어보고, 쇼퍼물에 가서 물건을 사기도하고, 호텔에서 잠을 자보기도 하면서 다양한 체험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본 음식문화에 대한 체험을 다양하게 해보았는데 처음에는 입에 맞지 않는 것은 먹지 않았었는데 나중에는 새로운 것에 대해 도전을 해보자는 용기가 생겨 입에 맞지 않아도 한번 씹 맛보면서 일본인의 문화체험을 해볼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어딜 가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라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이렇게 일본 연수를 다녀와서 나는 달라진 점이 참 많다. 첫째로 사물을 보는 시각

이 달라졌다. 우리가 견학을 하면서 버스로 이동을 하며 발표시간을 가졌었다. 그래서 견학을 하면서 발표할 주제를 생각하며 사물을 보다보니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는 사고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발표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공유하다보니 생각하는 것도 넓어졌다.

박물관과 미술관을 다니면서 일본의 역사나 미술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일본어를 배우게 되었으며 연수를 통해 배운 많은 것들을 실천해볼 때 더 성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또한 이 일본 연수를 시작으로 다음 주번 호주로 인턴ships 떠난다. 낯선 나라에서 배운 매너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포용력, 도전정신은 내가 호주에 가서도 잘 적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확신한다.

7개월의 호주 인턴ships 마치고 돌아와서 나는 또 가기전과 다녀온 후의 차이점을 글로 적으면서 부족한 점은 깨닫고, 실천할 점을 다시 되새기면서 나를 성장시킬 것이다. I'll be back!

동문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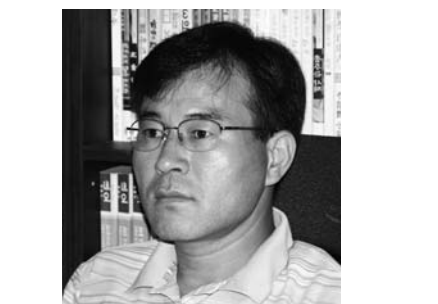
나이를 먹어도 늙지 않는 꿈

Life is moment in space
When you dream was gone
너무나 많이 알려진 바브라스 다이젠드의 <Women in love>의 첫 소설이다. 노래가 시작되는 부분이라 스쳐가듯 가볍게 지나가 버리지만 그 내용과 의의만은 결코 가볍지 않다. 꿈과 삶의 관계를 간명하게 정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나의 삶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날도 이 노래 가사를 흥얼거리면서 꿈을 꾸고 꿈을 다진다.

마흔여섯에 박사과정에 입학하려 하자 사람들은 의아한 눈으로 나를 봤었다. 석사학위도 받았겠다 철밥통 고등학교 선생이던 댜지 왜 사서 고생하려느냐고, 그러나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학원에 입학했고 3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위를 받고 나서 또 한 번 결단을 내리려 했을 때—세 직장을 위해 20년 교직생활을 그만두려 했을 때도 사람들은 말렸고, 비웃었다. 마치 30여 년 전 내가 고학의 길로 들어설 때처럼. 그러나 단행했다. 꿈꾸고 싶었고 꿈이 있었기에.

나이 선에 새로운 직장을 구한다는 일은 거의 무모한 도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순보다는 무려 십 년, 선한 삶보다도 일 년이 빠른 셈이니까, 그리고 아직은 꿈을 꾸고 있고, 꿈을 꾸는 한 청춘이라 여기기에.

꿈을 꾸는 것은 공짜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가가 따라야 한다. 인고(忍苦)다. 따라서 꿈은 인고를 피비로 자라는 아름다운 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더욱 아름답고 향기로 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고통이란 것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들이 보기에는 고통스러울지라도 당사자는 즐거움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절대치란 존재하진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요즘의 나의 삶은 즐겁다. 비록 남들이 보기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는 하지만 꿈을 향해 한걸음씩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성준 시인
(국어국문학과 82학번)

나에게 꿈이 있는 한, 나는 아직도 팔팔하고 젊은 늙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 나이를 따진다. 그리고 ‘썬’이란 숫자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곤 한다. 나는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네…….

일 년 동안 열 군데 넘게 원서를 냈다. 그러나 내는 족족 떨어졌다.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는 나이가 많다는 사실도 얼마간 작용했을 것이다. 정년을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나이를 먹은 셈이니까, 박사학위를 가진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 늙다리니까. 그러나 나이로 젊고 늙음을 판단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나의 바람이다. 신체적인 나이도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듯이 정신적인 나이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먹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간을 기준으로 나이를 따지면 나는 분명 원이다. 그러나 운동 능력이나 폐활량, 정신 능력이나 생각량을 기준으로 따지면 난 아직 팔팔한 30대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봐주질 않는다. 서운하고 억울하다. 그래서 공자는 50을 지천명(知天命)이라고 했는지도 모른다. 자기는 아직도 젊고 팔팔한데 사람들이 자꾸만 늙은이 취급하는 게 서러워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 즉, 인간에게서 버림받고 하늘의 뜻을 알아야만 하는 나이라고 서러운 거짓말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

늙고 젊음은 물리적인 나이보다 꿈의 유무나 크기로 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꿈은 늙지도, 나이 먹지도 않으니 까, 꿈을 꾸는 한 늙지 않고, 늙어서도 다시 젊어질 수 있으니까.

N7W, 부끄럽지 아니한가?



독짜기고

강민성
언론홍보 1

기다리고 기다리던 방학이 왔건만 방학을 마음 편히 즐기고 있는 학우가 몇이나 될까? 대부분의 학우들이 학비 걱정, 생활비 걱정 방학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나 또한 그러고 있다. 나는 행정기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그곳에서 일을 하며 느낀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써본다.

당신은 제주도 공무원들이 요즘 무슨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나?

요즘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들은 전화로 하루를 시작하고 전화로 하루를 마친다. 바로 세계7대 자연경관(이하 N7W) 선정 전화 투표이다. 제주도정의 지휘아래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마무리하면서까지 N7W 투표를 하고 있는 것이다.

N7W 전화 투표는 제한이 없다. 끝없이 중복투표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정은 공무원들에게 전화투표에 참여하라고 강요하고 있고 그에 따라 공무원들이 하루에 몇 통통씩 전화 투표를 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정은 각 읍·면·동 사무소 간 경쟁구도를 형성하려고 애쓰고 있다. 전화투표를 가장 많이 한 읍·면·동 사무소를 뽑아 홍보 평가 면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전화투표를 많이 한 곳에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며 예뻐해 주겠다는 것이다.

지금 제주도정은 N7W 선정에 폭 빠져있다. 전화 투표에만 30억 원을 지출하면서까지 폭 빠져있다. 제주도정이 N7W 선정에만 힘을 쓰고 있는 행동, 나는 이게 올바른 행동인지 의아하지만 한다.

제주도정은 제주도가 N7W에 선정이 되면 한 해 6200억~1조3000억 원의 경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 제주도정은 제주도가 N7W에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경제적인 면을 통해서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N7W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바로 ‘감동’이다. N7W에 선정된 지역은 그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제주도는 과연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줄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제주도가 과연 관광객들에게 ‘와, 명불허전이네’라는 말을 들을 만큼 탄탄한가?

제주도는 아직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제 이름 값을 할 만큼 탄탄하지도 않다. 제주도의 관광 명소들이 훼손되어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 몇몇의 서비스 업체 때문에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갖고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가 N7W 선정에만 힘을 쓰지 말고 제주도를 탄탄하게 하는 데 좀 더 힘을 써야 한다.

공무원들이 하루 종일 전화를 붙잡고 전화투표를 하는 모습을 보자니 내가 다 민망하다. 제주도가 공무원들의 중복투표로 N7W에 선정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제주도는 제주도민과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세계인들의 인정을 받아 N7W에 선정되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제주도의 가치가 빛이 날 것이다.

제주도가 공무원들에게 인정받게 될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인정받게 될지는 제주도정과 중앙정부의 손에 달려 있다. 제주도정과 중앙정부가 전화투표에만 온 힘을 쓰지 말고 도민과 온 국민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시행해야 할 때이다. 제주도가 멋있게 N7W에 선정되었으면 한다.

‘녹색제주’ 든든한 파수꾼... 자원봉사 본격 활동

UCC 제작·환경 MT 등 다양한 운동 펴기로

● 특별한 방학을 보내는 이들 - 환경 사랑 MT 기획한 동아리 ‘풀벋’

여름방학이 되면 많은 대학생들이 쯔뚝 대위를 피해 MT를 간다. MT를 떠나면 모처럼 방학의 여유를 즐길 수 있지만, 대부분 술을 마시고 소비적인 시간을 보내기 마련이다. 그러나 흥청망청 즐기는 MT문화에서 벗어나 ‘환경을 사랑하는 MT’를 가져며 길을 나선 이들이 있다.

주인공은 환경운동연합 대학생 환경교육 동아리 ‘풀벋’의 오경중(언론홍보 4), 김용승(환경공학 4), 박종건(국문 4 휴학), 오정금(환경공학 4), 유호진(해양시스템 4 휴학), 임주현(경영 4), 김효진(일본 3), 김정경(수의학 분과 2), 김미진(화학 1)씨 등 9명.

이들은 무분별하게 환경을 해치지 않는 ‘환경 사랑 MT’를 모토로 다음달 14일부터 이틀간 여름방학 캠프를 떠날 예정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풀벋의 회장인 오경중씨와 회원 김미진씨를 만났다.

“보통 MT를 가면 술마시고 게임하고 일회용품도 많이 써요. 대학생으로서 조금 더 생산적이고 친환경적인 MT를 만들 수 없을까 고민했어요.”

소비적인 기존의 MT문화에서 벗어나 진짜 대학생다운 MT를 고민한 것이다. 식기를 모두 가져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탄소 배출량도 줄일 것이다.

“작은 노력이지만 조금만 신경쓰면 얼마든지 환경을 사랑하는 MT가 될 수 있어요. 친환경적으로 MT를 즐기고, MT 중 환경 캠페인도 벌일 겁니다.”

이들은 삼양~이호해안 일대를 올레길 걷듯 걸으며 쓰레기도 줍고 마주치는 이들에게 환경관련 팸플렛과 부채를 나눠줄 계획이다.

직접 거리에 나가 사람들과 마주하며 환



환경운동연합 대학생 환경동아리 ‘풀벋’의 회장 오경중(언론홍보 4)씨와 회원 김미진(화학 1)씨.

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겠다는 것이 다.

“MT 기획을 시작하자 환경캠페인과 관련해 팀원들 사이에서 재미있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도시를 돌아다니며 반나절동안 환경 관련 UCC를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고 헌옷을 리폼해서 시민 투표를 받자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대학생들이 막상 시작을 안해서 그렇지, 기획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의미있는 MT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풀벋’의 대학생들은 지난 5월 15일 첫 활동을 시작으로 어린이 환경학교, 청소년 화산탐사대 등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아이들에게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있다. 이들은 MT를 마친 후에도 환경을 사랑하는 활동을 계속 해나갈 계획이다.

“8월에는 생태공부방이라는 프로그램도 진행할 거예요. 아이들이 사는 지역의 하천 생태계를 아이들과 함께 조사하고 공부하는 것이죠. 아이들은 자신의 동네에 있는 생태계를 보며 자연스럽게 자연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모두들 취업준비와 스펙쌓기에 열중하는 방학. 이들은 금쪽같은 방학기간에 환경을 사랑하는 활동을 하고 환경 사랑 MT를 기획하며 보내고 있다. 조금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들은 “오히려 얻는게 많다”며 입을 모았다.

“그동안 우리 자신이 많이 오염이 돼 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풀벋 활동을 하며 스스로를 씻을 수 있었죠. 다른 대학생들도 방학을 그냥 흘려보내기 보다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하기를 권합니다.”

고용희 기자

“관광통역사 꿈에 도전”... 배움에 늦음은 없다

넘어서도 다시 일어서는 끈기 가져야

● 특별한 방학을 보내는 이들 - 55년생 늦깎이 대학생 최영숙(관광경영 2)씨

55년생 늦깎이 대학생, 최영숙(관광경영 2)씨는 방학 중 세월을 잊은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도전 앞에서 주춤거리는 대학생들에게 그녀가 전하는 이야기를 들어봤다.

“늘 공부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지만 결혼하고 애들 공부시키느라 할 수 없었죠. 못다한 배움의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에 들어왔어요.”

그녀의 첫 도전은 대학 입학이었다. 자녀들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기가 두려울 법도 하지만 못다한 배움의 꿈이 그녀를 대학으로 이끌었다. 처음에는 공부며, 인간관계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한다.

“솔직히 처음에는 왕따를 당할까봐 걱정했어요. 엄마뻘인 제가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공부할 수 있을까 두려웠죠. 그런데 학생들이 ‘이모’라고 친근하게 불러주더라고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애들과 친해질 수 있었어요.”

학과 친구들이 그녀를 많이 도와주긴 하지만 늦게 공부를 시작한 그녀에게 대학 공부는 여전히 어렵다. 컴퓨터가 서툴러 조별 발표를 할 때에는 본의 아니게 신세를 지기도 한다.

“전공공부를 하다보면 새로운 용어들도 많고, 컴퓨터 등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 애를 먹어요. 특히 시험을 볼 때면 내가 도대체 왜 대학에 왔나 후회를 하기도 하죠. 솔직히 젊은 친구들을 따라잡기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즐거워요.”

아직은 모든게 서툰 학생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는 그녀이지만, 그녀는 스스로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며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그녀는 대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기회에 도전하고 있다. 특히 방학은 그녀에게 소중한 기회의 시간이다.

“대학에는 학생 신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회들이 많아요. 나이는 들었지만 학생이기에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대학생만의 기회를 꼭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방학중에 평소 부족했던 컴퓨터를 공부할 계획이다. 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가 지난 6월에 개최한 ‘극기훈련 자기극복 캠프’를 비롯해 운동을 통해 건강과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는 ‘헬스&뷰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늘 즐거운 도전을 하는 그녀에게서 세월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세월을 거슬러가는 그녀의 꿈은 ‘관광통역사’다.

“이 나이에 관광통역사를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관광통역사가 된다면 틀에 박힌 관광지 설명보다는 재미있게 유머를 구사하며 설명하고 싶어요. 그럴려면 관광 전문영어는 물론 회화까지 완벽하게 구사해야 하겠죠. 쉽지 않겠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꿈을 이루기 위해 방학 중 한국의 대에서 외국어 과정보다 수료하고 있다. 새로운 도전 앞에서 주춤이지 않고 달려나가는 그녀의 모습은 도전을 두려워하는 대학생들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대학생들이 도전 앞에서 주춤거리는 것은 사회가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전 앞에서 실패가 두려워 주춤하는 청춘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비록 실패를 직책하는 사회 속에서 ‘도전’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녀는 젊은이들에게 ‘넘어서도 다시 일어서는 끈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학생때에는 조금 잘못해도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타인의 시선에 주춤하



지 말고 끝까지 해보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그녀도 물론 가끔 실패를 맛보지만, 그녀의 도전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녀는 젊은이들도 후회없이 도전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공부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젊었을 때 못해본 것들을 지금 도전하고 있지만, 왜 진작에 이렇게 도전하지 못했을까 늘 후회합니다. 학생으로서 실패 말고, 실패 공부하고, 실패 도전하세요. 저처럼 나 이런 사람도 즐겁게 무엇이든 도전하잖아요. 도전은 학생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고용희 기자

문화단신

제10회 아라음악 콩쿠르 개최

음악학과가 주최하는 제10회 아라음악 콩쿠르가 다음달 19일부터 이틀동안 오전 9시부터 음악관에서 열린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접수는 다음달 8일부터 12일까지이다. 참가비는 8만원이다.

문의=예술학부 사무실 전화 064-754-2790

연극 ‘가시고기’ 내달 27·28일



아들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을 그린 연극 ‘가시고기’가 다음달 27일부터 이틀간 제주아트센터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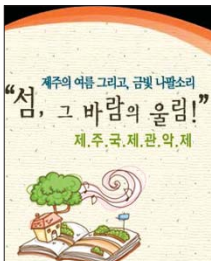
27일에는 오후 3

시와 7시에, 28일에는 오후 2시와 6시에 공연이 펼쳐진다. 연극 ‘가시고기’는 조창인 작가가 쓴 동명의 소설을 극화한 작품이다. 이번 연극에는 이광기, 김민희, 이재현, 조선주, 신기준 등이 배우로 출연해 감동을 선사한다.

예매는 다음달 1일 오후 1시부터 사랑티켓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특히 27일에 열리는 공연은 선착순 예매로 1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문의=티켓포유 전화 1544-7579

2011 제주국제관악제 내달 12일



2011 제주국제관악제가 ‘섬, 그 바람의 울림!’을 주제로 다음달 12일부터 20일까지 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해변공연장, 천지연폭포야외공연장에서 열린다. 제주국제관악제는 야외연주가 용이한 관악의 특성과 함께 제주가 갖고있는 평화의 이미지와 여름철 낭만이 조화를 이룬 제주도의 대표적인 예술축제가

다.

제주도와 (사)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관악제에는 국내 유명 관악단들을 비롯해 일본, 중국, 벨기에, 독일, 홍콩, 대만, 호주,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의 관악단들이 공연을 선보인다. 관람료는 무료다. 문의=전화 064-710-3417

N7W음악회 오는 27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기원 음악회 ‘What a Wonderful JEJU’가 오는 27일 오후 7시 30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90분 동안 열린다. 테너 박현진, 소프라노 유소영, 바리톤 서정학, 메조소프라노 양송미씨가 성악연주회를 선보인다. 관람료는 무료다.

문의=전화 010-3359-5668

해외견학 및 연수, 기업방문

세계자연유산유적지, 세계문화유산유적지, 세계유명명산, 해외감귤산업체방문, 해외물산업체방문
농업, 축산업기관방문 및 연수, 산업별 박람회 - 반도체, 기계, 건축, 제약, 바이오, 식품 등..

중국

- 북경/만리장성 4일**
제주-북경-천안문광장-자금성-만리장성-이화원
- 상해/항주/소주 4일**
제주-상해-소주절정원-항주서호-황포강유람선-외탄야경
- 상해/장가계 5일**
제주-상해-장가계-천자산-보봉호-황룡동굴-백룡엘리베이터

일본

- 동경/후지산 4일**
제주-나리타-외쿠타니계곡-하코네유람선-긴자거리-신주꾸거리
- 오사카/나라/교토 4일**
제주-오사카-동대사-청수사-오사카성-고베

대만

4일

제주-부산-타이베이-화롄-태각로-아류-양명산온천-국립고궁박물관

싱가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5일

제주-인천-싱가폴-바탐섬-조호바루-센토사섬

필리핀

5일

마닐라
제주-인천-마닐라-팍산한목포-따알화산-히든벨리

인도
8일

인도/젠지스
제주-인천-델리-젠지스강-황금사원-타지마할

베트남
5일

베트남북부/하롱베이
제주-인천-하노이-하롱베이선상유람(세계문화유산)-펄픽

홍콩

4일

제주-인천-홍콩-해양공원-리얼스베이-빅토리아산정

호주

6일

시드니

미주

- 미중부
- 미서부
- 캐나다

8일

유럽

- 서유럽
- 동유럽
- 북유럽

8일

제주렌트카 자매회사

하너투어전문 판매대리점

JR투어

일정 및 견적문의
TEL. 748-2002

담당: 문인관 [일어일문학과출업]
H.P: 010 - 4693 - 2394

제이알투어(주) 제주시 연동 2312-1, 국외여행업등록 94호, 제주도의 토종기업, 34년 전통 제주렌트카 자매회사, 해외여행, 국내여행, 렌트카를 포함한 광범위한 영업